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2호 | 2022 가을

포커스 I 한중 수교의 회고와 전망

포커스 II 한중 교류와 역사 현안

동북아역사포커스 제2호 (2022 가을)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2 Fall 2022)

동북아역사포커스

제2호 2022 가을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심호성, 위가야,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4
특별기고	고전에서 본 교류와 우정 : 최부의 『표해록』을 읽고 거전자(葛振家) 베이징대 명예교수	7
포커스 I 한중 수교의 회고와 전망	한중 수교 30주년의 회고와 향후 한중 관계 신정승 전 주중국대사	20
	한중 수교 30년의 평가와 전망 조영남 서울대 교수	31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아시아의 ‘가치동맹’을 모색하다 강진아 한양대 교수	44
포커스 II 한중 교류와 역사 현안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 학술 교류와 성과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56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65
	『사대문궤』를 통해서 본 16세기 한중 관계 :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이정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80
	한중 수교 30년, 한중 음식 교류 30년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91
	한중 도자사(陶器史) 연구 교류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	105
현지통신	수교 30주년, 베이징에서 본 중국의 외교·대한국 전략 조준형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118

올해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양국 간 역사와 현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2호에서는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며 앞으로 양국 간 미래를 전망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특별기고」는 중국 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인 거진자(葛振家)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명예교수가 최부의 『표해록』을 통해 조선과 명 간 교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에서 민간 교류의 중요성과 한중 상호 간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포커스 I」은 ‘한중 수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하에 정치, 외교,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중 수교 30년간 한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 양국 관계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주중국대사인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중 수교 과정에 외교 실무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이념과 체제는 다르지만 양국 간 신뢰를 쌓아가면서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수교 30년간 양국의 교류와 국민들의 상호 인식이 크게 변화해온 추이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양국 정부가 민감한 현안을 잘 관리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전문가인 강진아 한양대 교수는 근대 한중일 3국 내 기억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보여준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였습니다. 강진아 교수는 한

중 관계 등 현재 동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경직된 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II」는 ‘한중 교류와 역사 현안’이라는 대주제하에 한중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 속에 상호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역사문제를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간 학술 교류의 경험, 중국 동북3성 지역 내 박물관의 전시 내용 및 임진왜란 시기 외교문서를 사례로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을 비롯하여 도자기 등 양국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커스 II」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 학자들과 민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의 학술 교류 및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학자 간 교류가 확대되어온 과정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성제 연구위원은 한중 양국은 현재 코로나19로 단절된 한중 학술 교류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주제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주요 박물관의 고구려 관련 전시 패널 내용들이 중국 중심적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전파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연구위원은 박물관 관람을 통한 체험적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사대문궐』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이 주고받은 외교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 간 교류, 소통 과정과 조선의 생존 전략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정일 연구위원은 『사대문궐』 문서들의 편역 작업을 주관하여 현재까지 세 권의 책자를 출판하였습니다.

민속학 전문가인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한중 음식 교류의 역사로서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의 한국 음식점과 서울의 중국 음식점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교수는 최근 김치와 파오차이 논쟁 등 음식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 함께 요리하며 먹는 ‘식탁 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역사의 전문가인 장남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청자 등 우리 도자기의 발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도자기 도시인 징더전(景德鎮) 등 현장과 유적 방문으로 해소되었으며, 중국 학계와의 교류와 전시,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남원 교수는 도자사 교류의 경험을 참조하여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통신」에서는 조준형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는 베이징 현지의 분위기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준형 특파원은 한중 수교 30주년의 서른 ‘잔치’가 끝난 후 서로 감정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양국 간에는 우호와 협력이 증대되는 가운데에서 일부 갈등과 상호 인식의 차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한중 양국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한중 간의 오랜 관계에서 보여준 교류 사례와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고전에서 본 교류와 우정

최부의 『표해록』을 읽고

거전자(葛振家) 베이징대(北京大) 명예교수

『표해록(漂海錄)』은 지금으로부터 534년 전인 1488년(명弘治 원년, 조선 성종 19), 조선 선비 최부(崔溥)*가 한문으로 기록한 중국 기행이다. 최부와 그의 일행 42명이 풍랑을 만나 조선의 제주도에서 중국 저장성(浙江省) 연안까지 표류한 뒤, 다시 수로와 육로를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와 중국 명나라 홍치 원년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 및 풍속과 민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정치 제도, 해안 경비, 사법, 운하, 도시, 민속 및 명과 조선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참고 및 검증 가치가 있는 전적(典籍)이다.

* 최부(1454~1504): 조선 전기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등을 역임한 문신. 자는 연연(淵淵), 호는 금남(錦南)이다. 1488년 부친상을 당해 봉직하던 제주에서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14일간의 표류 끝에 명나라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에 도착하였다. 이후 북경(北京)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성종의 명을 받고 중국에서의 견문을 기록하여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 3권을 완성하였다.

1 「柳希春跋文」. 注釋譯文은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역주』(고려대학교출판부, 2006)에서 인용.

1. 증원을 묘사한 대문장¹

최부는 “방대한 학문과 강한 절개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² 그가 쓴 『표해록』은 “증원을 묘사

한 대문장(鉅筆)”으로 일컬어졌다. 기행문의 내용은 만상(萬象)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표해록』은 본래 조선 성종에게 찬진(撰進)한 ‘내부 보고’였으며 최부가 보고 들은 내용은 모두 구하기 힘든 소중한 기초자료로 조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명이 1421년(永樂 19)에 남경(南京)에서 북경(北京)으로 천도한 이후로 조하(朝賀: 조정에서 임금을 하례하는 것) 왕래는 더 이상 중국 강남 여정을 거치지 않았다.

최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강남 지방을 몸소 경험하고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최부의 『표해록』은 문헌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서에 기록되었으며 간본으로 인쇄하던 시기에 여러 번 간행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1769년(明和 원년) 한학자인 기요타 기미카네(清田君錦)가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라는 이름으로 번역·출판하였으며 자신의 역사관으로 이 책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부의 『표해록』과 최부보다 52년 뒤 명을 방문한 사쿠젠 슈료(策彦周良)가 쓴 『입명기(入明記)』를 서로 참조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이해하고 명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필독 참고서가 되었다.

최부의 『표해록』은 서방 학계의 주목을 받은



『당토행정기』의 해추도(海鯨圖)

표류하는 최부의 배와 목격한 고래(海鯨) 묘사

특별기고

최부의 『표해록』은 서방 학계의 주목을 받은 동방 서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65년 미국 학자 존 메스킬은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였고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

동방 서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65년 미국 학자 존 메스킬(John Meskill)은 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였고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중국 사학자인 황런위(黃仁宇)의 첫 번째 학술논문인 「명나라의 조운(明代的漕運)」에서는 남북 대운하(浙東 대운하, 京杭 대운하)에 대한 최부의 기록을 여러 번 인용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저서³에서 이미 최부의 『표해록』에 묘사되어 있는 중국 명의 해금(海禁)정책과 해방(海防)체제에 대한 기술, 직접 경험한 중국 남북 대운하 전 노정에 대한 기록, 중국 남북 풍물 및 민간에 대한 비교, 자신이 겪은 중국 명나라 표류안건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기록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한중 관계 차원에서 최부의 『표해록』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고 500여 년 전 최부 일행이 중국 각계 인사와 쌓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2. 민간 교류의 중요성

최부는 1488년 윤1월 초3일, 제주도에서 공무를 보던 중 부친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 42명과 함께 내륙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

3 葛振家, 2002, 『崔溥《漂海錄》評注』, 線裝書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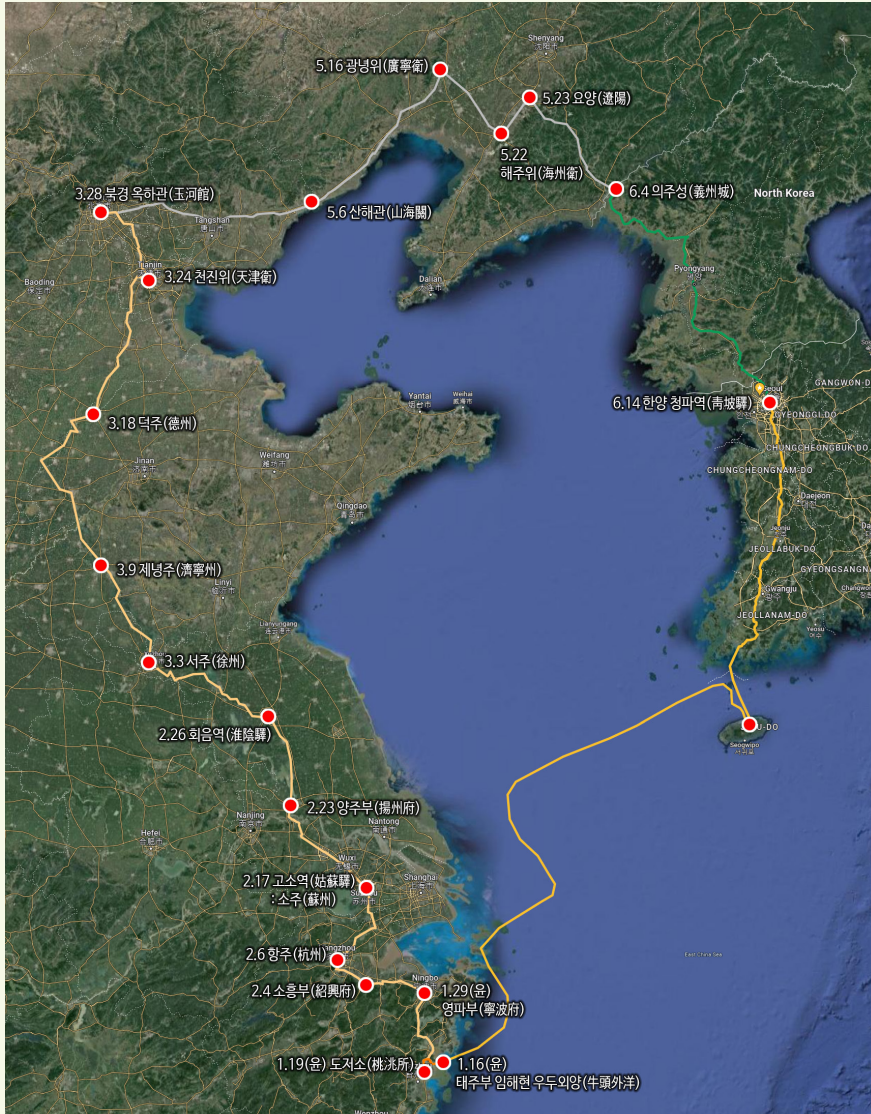
랐다. 당시는 배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겨울철 이어서 최부 일행은 배에 타자마자 풍랑을 만나 13일간 표류하다가 중국 저장성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 현재 三門縣) 관내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다시 비바람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숲을 지나 겨우 어떤 마을의 사당에 다다른다.

외진 마을에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일행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였고, 최부 일행은 예를 다해 대답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미음, 차,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음껏 마시게 하였고 불당을 가리키며 저곳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였다. 불당에 도착한 최부 일행은 바람에 젖은 옷을 말렸고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최부는 열정적인 환대와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을 받았고 연신 “과연 모두 충후한 사람들이로구나”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 중국의 외진 시골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였고, 시골 사람들도 조선이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멀리 조선에서 온 이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소박한 공감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부 일행이 처음 만난 지방 관리는 해문위(海門衛)인 천호(千戶) 허청(許淸)이었다. 허청은 관리

4 『漂海錄』 권1, 윤1월 17일.

특별기고



최부 일행의 노정도(구글맵 기반으로 작성 © 주성지)

로서 표류해 입국한 자들을 국가 법률과 심사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내야 했다. 최부를 만나자마자 허청은 “우리 대당(大唐)의 법도는 엄격하다”⁵라고 일러주었고, “나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법에 구애되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수 없을 뿐이다”⁶라고 하였다.

허청과 최부는 함께 식사를 하였고 좌중에 있는 한 사람이 젓가락으로 탁자 위에 “당신은 돼지고기를 드시오?”⁷라고 썼다. 최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어육, 젓갈, 매운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⁸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별도로 채소반찬을 준비해 주었다. 허청은 최부의 옷이 젖은 것을 보고 “오늘 햇볕이 좋으니 옷을 벗어서 말리는 것이 좋겠다”⁹라고 하자 “내 옷은 모두 젖었고, 이것을 벗으면 입을 것이 없으니 말릴 수가 없다”¹⁰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허청은 옷이 마르도록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앉게 하였다. 『표해록』에서는 특별히 세심하고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적고 있다.

최부 일행은 처음에 왜구로 오해를 받아 심문을 받기도 하였으나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손님과 친구처럼 대접받았고 저장성 동쪽 영해현을 지나 백교령(白嶠嶺)에 이르자 현지

5 『漂海錄』 권1, 윤1월 18일.
6 『漂海錄』 권1, 윤1월 19일.
7 『漂海錄』 권1, 윤1월 20일.
8 『漂海錄』 권1, 윤1월 20일.
9 『漂海錄』 권1, 윤1월 20일.
10 『漂海錄』 권1, 윤1월 20일.

특별기고

최부 일행은 뜻하지 않게 중국까지 표류하게 되었고 이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중국인들과 교분을 쌓고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

군졸 20여 명이 가마를 메고 와 맞이했다.¹¹ 요동의 광녕(廣寧), 요양(遼陽) 등 역에 이르자 현지 관리가 통돼지와 술로 위로해 주었다. 이에 최부는 정말 다행이라 느껴 “중국의 경계에 도착해 정박하였으니 이로 인해 살 수 있었던 것이오”¹²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부의 일행들도 감탄하며 세 가지 행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 번 환난을 겪었으나 죽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 다행한 일입니다. … 지금 우리들은 한 번도 구금되어 고생하지 않았으며, 도착하는 곳마다 모두 정중하게 대접받아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다행한 일입니다. … 지금 우리들이 황도에 도착했을 때는 황제께서 상으로 물품을 하사하셨고, 광녕에 도착했을 때는 진수삼사(鎭守三司)가 옷, 모자, 신을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후하게 상을 받고 돌아가니, 이것은 세 번째 다행한 일입니다.”¹³

최부 일행은 뜻하지 않게 중국까지 표류하게 되었고 이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중국인들과 교분을 쌓고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 중국에서 135일 체류하는 동안 이들과 교류한 사람 중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130여 명이 된다. 위소(衛所)의 천호(千戶), 백호(百戶) 및 현령(縣領) 등

11 『漂海錄』 권1, 윤1월 26일.

12 『漂海錄』 권3, 5월 16일.

13 『漂海錄』 권3, 5월19일.

중하층 관리와 역승(驛承),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간 관리, 은거하면서 벼슬을 하지 않는 은유(隱儒), 빈곤으로 실의에 빠진 학자, 시골의 거인(學人: 명청 시대에 향시[鄉試]에 합격한 사람), 사공, 승려, 시동, 시골 사람들 등 많은 하층민들과 교류하였다. 비록 감금인 및 표류인 신분이었지만 머무는 곳마다 방문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도저소(桃渚所)에서 방문자들이 “또 그 밖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었고, 다투어 지필(紙筆)을 가지고 물으니 모두 대답할 수 없었다”¹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예의지국인 조선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으로 가는 곳마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다과와 고기와 술을 내어주었다. 건도소(健跳所)에서는 성이 윤씨인 늙은 관인이 최부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처첩과 자녀들에게 예를 표하도록 하였다.¹⁵ 중국에서는 손님을 집으로 모시면 귀빈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사신으로 조선에 갔던 급사중(給事中) 장녕(張寧)은 항주(杭州)와 백 리 떨어진 가흥부(嘉興府) 해염현(海鹽縣)에 살고 있었다. 조선 문사(文士)가 표류해 왔다는 말을 듣고 조선의 실정을 묻고 싶어 항주에 며칠 머물렀다. 아쉽게도 하루 전에 돌아가서 만나지 못하였는데,¹⁶ 아쉬움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다.

14 『漂海錄』 권1, 윤1월 20일.

15 『漂海錄』 권1, 윤1월 24일.

16 『漂海錄』 권2, 2월 초8일.

표류 13일째,
파도에 지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자
최부는 일행에게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지국이니 비록
표류하고 쫓겨 다니는
궁색한 지경이라도
또한 마땅히 예의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절이 이와 같음을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3. 이념과 정서 속 공감대

중국은 예로부터 조선을 예의와 풍속이 아름답다고 극찬하였다. 『한서(漢書)』에서는 도의지국(道義之國)으로, 『당서(唐書)』에서는 군자지국(君子之國)으로, 송·명 역사서에서는 예의지국으로 불렀다. 이러한 찬사는 서로 통하는 이념과 정서의 공감대이기도 하다.

표류 13일째, 파도에 지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자 최부는 일행에게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지국이니 비록 표류하고 쫓겨 다니는 궁색한 지경이라도 또한 마땅히 예의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절이 이와 같음을 알도록 하라”¹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골이든 도시든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도 읊(擷)하며 예를 표했다. 현지인들은 모두 “귀국이 예의지국임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입니다”¹⁸라고 칭찬하였다. 서로 통하는 문화적 심리, 유사한 반응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정서적인 공감대이다.

최부는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 관리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고대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교류하였고 대화의 주제도 매우 넓었다. 유학과 경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최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7 『漂海錄』 권1, 윤1월 17일.

18 『漂海錄』 권1, 윤1월 17일.

아들을 낳으면 먼저 『소학(小學)』·『가례(嘉禮)』를 가르치고, 과거 또한 이것에 정통한 자를 뽑고 있소. 상을 치를 때나 집에 있을 때 한결같이 그것을 따르고 있소”¹⁹, “집집마다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업[本分]으로 삼고 있소”²⁰, “사람들이 모두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며, (밖에) 나가서는 공경하며, 임금께 충성하고, 벼를 밍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소”²¹, “우리나라 선비들은 모두 경학(經學)을 궁리(窮理)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고 있소”²²라고 했다. 서로의 가치와 이념이 통하므로 대화도 잘 통하였다.

최부와 중국 관리 및 민간인과의 대화(필담)는 각자가 본토의 입장에서 태연하게 자신의 역사관과 문화관을 표현한 토론이었다. 최부와 그 일행이 산둥성(山東省) 개하역(開河驛)을 지날 때 호송 관리가 향을 피우고 신께 제사를 지내면서 최부에게도 절을 하라고 하자, 최부는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것은 제후(諸侯)의 일이고 사(士), 서인(庶人)은 다만 조상에게만 제사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그 분수를 넘으면 예가 아니다. 예가 아닌 제사는 사람이 아첨하는 것이므로 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 감히 산천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당에 절할 수 있겠는가?”²³라고

19 『漂海錄』 권3, 3월 29일.
 20 『漂海錄』 권1, 윤1월 18일.
 21 『漂海錄』 권2, 2월 11일.
 22 『漂海錄』 권2, 2월 17일.
 23 『漂海錄』 권2, 3월 초10일.
 24 『漂海錄』 권2, 3월 초10일.
 25 『論語』 子路篇 23장.

특별기고

이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존중과 이해의 태도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니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답하자 호송 관리도 “이 사람에게 절을 시킬 수 없고, 또 그 의지를 굽힐 수 없다”²⁴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²⁵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존중과 이해의 태도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니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부의 『표해록』을 읽을 때마다 늘 저자와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군자와 신기한 교류를 한 것 같다.

번역: 전현정



거전자(葛振家, Ge, Zhenjia)

베이징대 명예교수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정년퇴임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부연구원, 베이징대학 한국학연구센터 부주임을 역임했다.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였으며, 최부의 『표해록』을 중국 독자에게 널리 알렸다.

포커스 |

한중 수교의 회고와 전망

한중 수교 30주년의 회고와
향후 한중 관계

신정승 전 주중국대사

한중 수교 30년의 평가와 전망

조영남 서울대 교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아시아의 ‘가치동맹’을
모색하다

강진아 한양대 교수

한중 수교 30주년의 회고와 향후 한중 관계

신정승 전 주중국대사

1. 한중 수교 30년 회고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그간 때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가 크게 발전해 온 것은 분명하다. 양국 지도자들 및 고위 외교 관계자들 간의 회동이 빈번해졌고,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상호 방문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000만 명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양국 간 무역은 크게 증가되어 작년에는 왕복 무역액이 3,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대한 공식 명칭도 몇 번에 걸쳐 격상되었으며, 2008년 이래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명칭의 격상은 정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대한 공식 명칭도 몇 번에 걸쳐 격상되었으며, 2008년 이래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수교 문서 서명

첫째 줄 왼쪽부터 신정승(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이상욱(한국 외무장관), 첸치전(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둘째 줄 왼쪽 첫 번째 윤해중(아주국 심의관), 둘째 줄 왼쪽 세 번째부터 권병현(실무교섭 수석대표), 노재원(주베이징무역대표부 대표), 쉬둔신(徐敦信,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장루이제(張瑞杰, 중국 측 실무수석대표), 왕잉판(王英凡,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장팅옌(張庭延, 아주사 부사장)

치적인 수사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협력을 경제 통상과 인적 교류를 넘어 정치·안보·군사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하자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나 ‘대륙’으로 호칭하고, 반면에 중국에서는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왕래가 없었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냉전체제가 허물어짐에 따라 미국 일극체제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글

포커스 I

로별화와 더불어 협력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적극 도모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정세의 흐름에 힘입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결실을 보면서 1991년 봄에는 한중 간 민간 형식이지만 사실상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대표부가 설치되었다.

1991년 가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에 따라 뉴욕의 유엔 안보리 소회의실에서 비공식이지만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필자도 회의 참석차 비밀리에 뉴욕을 다녀왔다. 이어 1991년 말 서울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첸치천(錢基琛)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여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듬해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를 계기로 중국 측의 비밀 수교 교섭 제의에 따라 1992년 8월에는 마침내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당시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대표부 설치 실무 교섭을 포함해서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첸치천 당시 외교부장의 자서전인 『외교십기(外交十記)』에 나타나 있다. 그는 덩샤오핑(鄧小平)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얻을 것은 많지만 잃을 것은 없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대만과의 단교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이며, 1990년의 한소 수교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즉, 한소 수교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말형 격이었던 소련

이 한국과 수교한 선례가 되었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각각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게 한중 수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었을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000년대에 들어와 마늘 분쟁, 동북공정 갈등, 탈북자 문제, 불량식품 문제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필요성과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더하여 얼마 전까지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 포용정책을 채택해 왔던 것도 한중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 1990년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의 중국과장은 필자에게 “중국은 너무 크고 정치가 불안정하며, 낙후된 경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서방의 대중 포용정책의 배경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중국 자신의 역량이 발휘된 것이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서방 세계가 오판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북한의 반발이었을 것이며, 1990년의 한소 수교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어쨌든 이후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서 2015년

포커스 I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진핑(習近平), 푸틴(Vladimir Putin)과 함께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참관한 것은 적어도 외형상 한중 우호 협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2016년 사드 사태 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한중 간 이견과 더불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비록 2017년 10월 한중 간 사드 문제가 봉합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도 양국 관계가 사드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중 수교의 정치·안보적 평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월등히 커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의 북한 일변도 정책에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본격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은 한중 수교가 기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중 간에는 여전히 상호 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크고, 북한도 핵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력 위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 한중 관계에서의 도전적 과제

근년에 들어 한중 관계가 미지근해진 데에는 사드 사태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간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중 관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양자 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은 한중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서울에서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함께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말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안을 존중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 향후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 양국 간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이다. 현재 북미 간의 북핵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은 한중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포커스 I

협상은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그간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깨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 7차 핵실험마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한다든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의 대응이 고도화될 경우 한중간의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양자 간의 정치·경제적 모순도 표면화되고 있고 상호 부정적 인식도 높은 수준에 있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그간 잠재되어 있던 한국에 대한 대국 의식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고, 한중 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으며, 양국 내 강한 민족주의 정서도 국민들 간 감정 충돌을 일으키기 쉽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김치와 한복에 대한 원조 논쟁에서 보듯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민족주의적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조치가 강화되는 추세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나 보조금 문제 등 공정 경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사라지고 있고, 중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교역 구조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로 변해가고 있기도 하다.

3. 향후 바람직한 한중 관계

한중 관계가 때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어도 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1992년 수교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북핵 문제를 포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상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 나아가 지역 내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문제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금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은 한중 수교 시에도 합의된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으로서,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협력은 확대하되 이견은 화이부동의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은 한중 수교 시에도 합의된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으로서,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협력은 확대하되 이견은 화이부동의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접하는 위치에 있고, 국토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분단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부존자원도 부족해 대외무역은 한국경제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급적 주변국가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방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고, 안보나 경제 면에서 국제협력을 중시하며, 가능하다면 다양한 다자협력체제에 중층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창설 멤버로 참가한 것은 한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국의 정체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고 문화적 역량도 크게 제고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각을 넓혀 지역 문제나 기후 변화, 국제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남방정책도 역내에서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만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중은 오랫동안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를 기정 사실로 하고 전술핵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핵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확장억지력 강화 등 한국 스스로 보다 확실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

포커스 I

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핵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적 갈등과 연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지만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나 국제무대에서의 회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차원 외에도 한중 간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형태와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정례화 내지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해공군력이 크게 신장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군대 간에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중 간의 군사 교류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발적 충돌 시 처리 절차에 대한 규칙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기초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내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며,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한중 경제안보 대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정치적 이견들과 경제통상 협력이 연계되지 않고, 양국의 지방 도시들 간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양국의 젊은 세대들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

포커스 I

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양국 청년들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고 미래의 한중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교류기금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중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에 더하여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재료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신정승(辛正承, Shin, Jung-seung)

전 주중국대사

2015년부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주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중국과장,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주중국공사와 외교통상부 공보관 겸 대변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냈다. 이어 주뉴질랜드대사,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지냈으며, 2010년 주중국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하였다. 이후 2015년 6월까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초대 소장을 맡았다.

한중 수교 30년의 평가와 전망

조영남 서울대 교수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즈음하여 이 글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중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어떤 궤적을 밟아 왔고, 시기별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추세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우리가 한중 관계 30년을 평가할 때는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중 관계는 일차적으로 한중 양국이 서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지구적(global) 및 지역적(regional) 요소도 한중 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

쳤다. 전자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중 간의 경쟁 심화, 후자로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대만해협의 긴장 심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갈등 악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지역적·국가적 요소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중 관계의 전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전망할 수 있다.

1. 한중 관계 30년의 시기 구분과 특징

한중 관계 30년은 세 가지 기준, 즉 첫째, 한 시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 둘째, 양국 간의 실제 교류 상황, 셋째,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우호 협력기’로 1992년 한중 수교부터 2003년 김대중 정부 말기까지의 초기 10년이다. 제2기는 ‘발전 중의 갈등 표출기’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2013년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중기 10년이다. 제3기는 ‘새로운 관계 모색기’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후기 10년이다.

한중 관계 30년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 10년(1992~2003)의 ‘우호 협력기’, 중기 10년(2003~2013)의 ‘발전 중의 갈등 표출기’, 후기 10년(2012~2022)의 ‘새로운 관계 모색기’가 그것이다.

〈표1〉 한중 무역의 발전 상황(한국 기준, 1992~2021)

단위: 억 달러

시기(년)	수출입(배)	수출(배)	수입(배)	세계	중국
1기(1992~2002)	64 → 412(6.4)	27 → 238(8.8)	37 → 174(4.7)	9.3%	19.6%
2기(2003~2012)	570 → 2,151(3.8)	351 → 1,343(3.8)	219 → 808(3.7)	11.5%	18.0%
3기(2013~2021)	2,289 → 3,015(1.3)	1,459 → 1,629(1.1)	831 → 1,368(1.6)	-	-

(1) 우호 협력기(1992~2003)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초기 10년은 ‘밀월기(蜜月期)’라고 부를 수 있다. 제1기의 한중 관계는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표1〉에 따르면, 1992년 양국 무역은 64억 달러였는데, 2002년에는 412억 달러로, 10년 동안 6.4배(수출 8.8배와 수입 4.7배)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1992~2013)에 한국의 세계 무역은 연평균 9.3% 증가한 데에 비해, 중국과의 무역은 연평균 19.6% 증가해, 양자 간에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그 결과 2003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에는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다만 제2기와 제3기에는 무역 증가율이 3.8배에서 1.3배로 둔화되면서, 양국 관계에서 경제 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로 감소했다.

한중 국민 간의 상호 인식도 제1기에는 매우 좋았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한류(韓流)’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한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단적으로 역사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미국 호감도를 능가했다(역사분쟁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바뀌게 된다).

초기 1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밀월기’를 유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

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밀월기’는 대부분 국가에서 수교 초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한중 관계만의 특징이 아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도 밀월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는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도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밖에도 제1기에는 미중 관계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미중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1기에는 북중 관계 역시 한중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는 ‘냉각기’라고 부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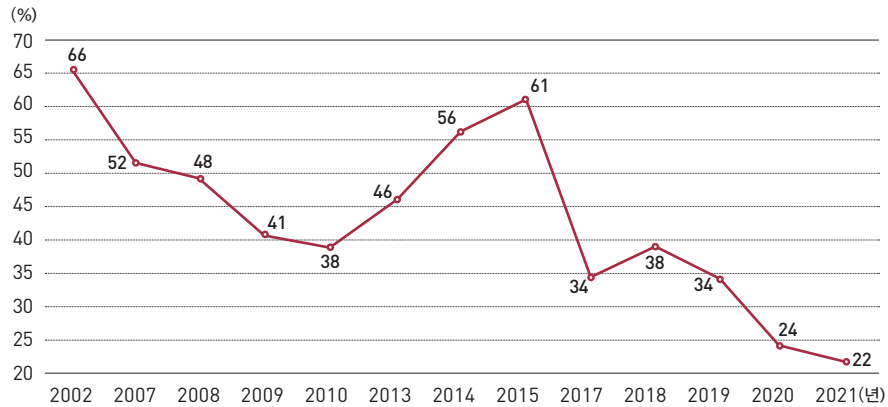
(2) 발전 중의 갈등 표출기(2003~2013)

제2기에 접어들어 한중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제2기에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2기를 단순히 ‘갈등기’나 ‘후퇴기’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제2기에는 마늘분쟁(2000)과 김치분쟁(2005) 같은 통상분쟁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외교·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연이어 표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 표출기’라고 부를 수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03년에 발생하여 2006년에 일단락된 역사분쟁이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국 학계는 ‘충격’에 빠졌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끓어오른 여론을 반영하여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고, 역사분쟁은 곧바로 외교분쟁으로 비화했다. 분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았던 양국 정부는 2004년에 ‘구두 합의’ 형태로 사태를 ‘봉합’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인식은 급변

포커스 I

〈그래프 1〉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 변화(2002~2021)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Project (2002-2021)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동북공정을 한중 관계의 ‘제1의 전환점’으로 부른다.

〈그래프 1〉은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한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네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2006년에 일 단락된 역사분쟁으로, 이것의 영향으로 2007년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52%로, 2002년의 66%보다 14% 포인트 감소했다. 두 번째는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이때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다시 38%로, 2007년의 52%보다 14% 포인트 감소했다. 세 번째는 2016~2017년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이 영향으로 2017년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34%로, 2015년의 61%보다 27% 포인트나 감소했다. 네 번째는 2019~2020년 중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홍콩 민주화운

포커스 I

동 탄압의 영향으로, 2021년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22%로, 2018년의 38%보다 16% 포인트 감소했다. 참고로 2022년 조사에서는 19%로 더 떨어졌다.

또한 제2기에는 외교·안보 문제가 한중 간의 갈등 요소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해 11월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두둔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서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은 전에 없던 단호한 어조로 항의하고,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를 한중 관계의 ‘제2의 전환점’으로 부른다.

제2기에 들어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한중 간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중국 부상의 가속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세력 균형의 변화, 즉 미국의 상대적 쇠락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강경한(assertive)’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재등장한다. 둘째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국 견제정책 추진이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최우선 정책과 북한 봉쇄정책 추진이다.

(3) 새로운 관계 모색기(2013~2022)

제3기에 들어 한중 관계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과 급하강을 경험한다. 여기에는 한중 양국의 국가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구적·지역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구적 요소로는 미중 경쟁의 전면화를 들 수 있다. 2012년 말에 등장한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이전

포커스 I

의 ‘강경한’ 외교정책을 이어갔다. 군사력 증강과 남중국해 지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정부도 중국과의 대결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전략의 추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전쟁’ 시작, 바이든 정부의 Quad(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약체), AUKUS(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 3자 협의회),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추진이 대표적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김정은 체제는 권력 공고화를 위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강화했다. 이전 시기의 두 차례 핵 실험(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에 이어, 김정은 집권 초기 5년 동안에만 무려 네 차례의 핵 실험(2013년 2월 3차, 2016년 1월 4차, 2016년 9월 5차, 2017년 9월 6차)을 감행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 진행했다. 남북 관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북중 관계도 ‘제2의 냉각기’로 부를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최우선 정책을 계승했다. 또한 북한 정책도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고, 무모한 도발 시도는 힘으로 억제한다는 봉쇄정책을 계승했다. 다만 중국 정책은 전 정부와는 달랐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구애(求愛)’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 3월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입 선언, 그해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송절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그해 연말 한중 FTA(자유무역

포커스 I

협정)의 비준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 한중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급전직하한다. 발단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이었다. 같은 해 1월에 북한은 4차 핵 실험을 감행했고, 6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외면당한다. 중국에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그해 7월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는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 반면 시진핑 정부는 사드 배치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조치를 감행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제한과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사드 사태는 한중 관계 30년의 세 번째 분수령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를 한중 관계의 ‘제3의 전환점’이라고 부른다.

2017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곤경에 빠진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했다. 2017년 10월에 양국 정부가 사드 사태의 ‘봉합’을 결정한 일,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핵 문제를 협의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최고급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는데, 한중 양국의 협력은 이에도 일조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론’은 사라졌고, ‘한반도 위기설’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한중 협력은 여기까지였다. 즉 양국은 2017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협력했지만, 2018~2019년 북핵 협의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실제 상황을 보면, 북핵 협상은 김정은-트럼프 간의 북미 정상회담(1차 2018년 6월 싱가포르, 2차 2019년 2월 하노이)이 주도하고, 문재인-김정은 간의 남북 정상회담(1차 2018년 4월, 2차 2018년 5월, 3차 2018년 9월)이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중은 긴밀히 협력했다. 4차에 걸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1차 2018년 3월, 2차 2018년 5월, 3차 2018년 6월, 4차 2019년 1월)과 시진핑 주석의 답방(2019년 6월)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중이 협력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중 관계는 네 가지 추세를 보인다. 첫째는 교류 영역과 주체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복잡화다. 둘째는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주요 영역 간의 불균등 발전의 심화다. 셋째는 정부의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 간의 괴리다. 넷째는 한중 간 국력 격차의 확대와 비대칭성의 증가다.

2. 한중 관계 30년의 몇 가지 추세와 특징

필자는 한중 수교 20년(1992~2012)을 분석하면서 한중 관계의 네 가지 추세를 지적한 적이 있다. 첫째는 교류 영역 및 주체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복잡화다. 둘째는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주요 영역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다. 셋째는 정부의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 간의 괴리다. 예를 들어, 양국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양국 간에 전략적 불신과 갈등이 확

포커스 I

대되었다. 넷째는 한중 간 국력 격차의 확대와 비대칭성의 증가다.

이런 추세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한중 관계의 주요 영역 간 불균등 발전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 협력과 사회 교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중 경제 협력 321시대’라는 표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3’은 무역 3,000억 달러, ‘2’는 상호 누적 투자 2,000억 달러, ‘1’은 인적 교류 1,000만 명을 가리킨다. 반면 군사 관계는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군사 관계는 ‘교류-협력-동맹’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한중 군사 관계는 30년 전이나 현재나 모두 1단계인 ‘교류’에 머물러 있다. 정치·외교 관계는 경제·사회 관계와 군사·안보 관계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런 네 가지 추세 이외에, 최근 10년 동안에는 세 가지 새로운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분열된 중국 정책 간의 대비(對比)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면 한국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간에 서로 다른 중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따라서 한국은 초당파적으로 장기적인 중국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중국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현상이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경제 영역을 제외한 외교·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중국과 과연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국민과 엘리트 계층 모두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경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포커스 I

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셋째는 한중 간에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그것의 핵심 내용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 간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력의 경우, 한중 수교 당시(1992) 중국의 GDP는 4,880억 달러고 한국의 GDP는 3,380억 달러로, 양국 간 격차는 1.4배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중국의 GDP가 15조 1,000억 달러고, 한국의 GDP는 1조 6,000억 달러로, 양국 간 격차는 9.5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군사력 격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에 더해 양국 간에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한중 관계의 비대칭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경제 관계는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했다. 여기서 관건은 첨단기술 분야[예를 들어, 반도체,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 통신(5G), 양자 컴퓨터, 항공우주, 바이오]에서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밀리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현재와 미래의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이런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 한중 관계의 전망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양국 간에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중 간에는 정치·사회·문화·역사 등 여러 영역에서 규범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해왔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현재는 역대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현재 한중 관계는 어정쩡한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재선임되면, 중국의 외교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외교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가는 ‘업적’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아 대만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경제와 외교 등 다른 영역에서도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한국의 활동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중국과는 협력보다 갈등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현재처럼 한미 동맹 최우선 정책과 북한 봉쇄정책을 고수한다면, 한중 간의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는,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의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

포커스 I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양국 정부가 민감한 현안을 잘못 관리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마냥 축하만 할 수는 없다.



조영남(趙英男, Cho, Young-nam)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난카이대학 정치학과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 『개혁과 개방』(2016), 『파벌과 투쟁』(2016), 『텐안먼 사건』(2016),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 등 15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 니어재단 학술상(2008),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20, 저술 부문)을 수상했다.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아시아의 ‘가치동맹’을 모색하다

강진아 한양대 교수

적어도 동아시아 삼국의 우호 관계에서 보자면, 1990년대는 가장 평화로웠다. 역사인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간헐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상징하듯 사과와 과거 청산 위에 미래를 지향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지 몇 년이 채 안 지났는데도 중국이 미국과 호감도 1위를 다투었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최초로 80%를 넘은 올해, 지금 젊은 이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한일, 한중 간의 호감도 급락을 흔히 역사 ‘왜곡’ 문제와 문화 갈등 탓으로 본다. 분명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간도 문제, 최근의 김치와 한복 논쟁으로 표면화된 조공과 속국의 해석 문제 등 역사·문화적 이슈가 3국 온라인상의 전투적 애국주의를 쉽게 타오르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 문제가 없는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70~80%에 이른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하필 이 비율은 중국 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율과 거의 일치한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의 비호감국이 된 러시아 역시 국내 푸틴 지지율과 각국의 비호감도는 거의 동률이다.

1. 역사‘분쟁’이면의 현재

역사분쟁이나 문화 갈등은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고 발화시키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1990년대 중국은 경제 개발을 본격화하며 앞서 나간 한국을 배우려고 하였고, 한국에게 일본은 아득한 선진국으로 따라잡아야 할 미국과 동급의 선진국이였다. 즉 지역질서 내에서 경제적 격차가 확연했기 때문에 서열이 잡혔고 주력 분야가 달라 상생할 수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IMF 위기) 이후 한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를 공급하며 성장 동력을 되찾았다. 반면 일본은 중국 열차에 동승을 망설이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점차 뒤쳐졌다.

2017년은 상징적이었다. 중국이 125년 만에 구매력 기준으로 GDP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1위 자리를 되찾았고,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섰다. 다시 해석하면 이제 세 나라 간의 경제적 서열이 무너졌고 서로 동일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그 방증은 올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박차를 가하기는 했지만, 이미 앞서 추진되었던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의 국내 자급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이다.

필자는 미국과 중국이 그런대로 아직 사이가 좋았던 2014년에 쓴 논문에서 “중국이야말로 근대 이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보유했던 구 세계 중에 ‘마지막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겪고 있는 ‘최대의’ 경제”라고 규정 짓고 향후 자원 쟁탈이 벌어질 세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냉전하에서 자급자족 노선으로 더딘 성장을 하던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체제’ 내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마음껏 조달하여 성장했으나, 미국에 대해 현저한 비교 열위에 있는 자원 압박은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또한 “중국은 ‘시장’을 매개로 한국에 ‘새로운 조공(新朝貢)’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사, 자원, 시장을 다 가진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우월한 ‘갑(甲)’이다”라고 한국의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다.¹

8년이 지난 오늘, 미중 경쟁의 강화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자유무역체제’와 글로벌 공급망은 새로운 ‘가치동맹’을 기초로 한 경제 블록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의 세계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직전을 연상시킨다고 하면 역사학자의 기우일까?

1 강진아, 『G2시대의 중국 사회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비평』 2014년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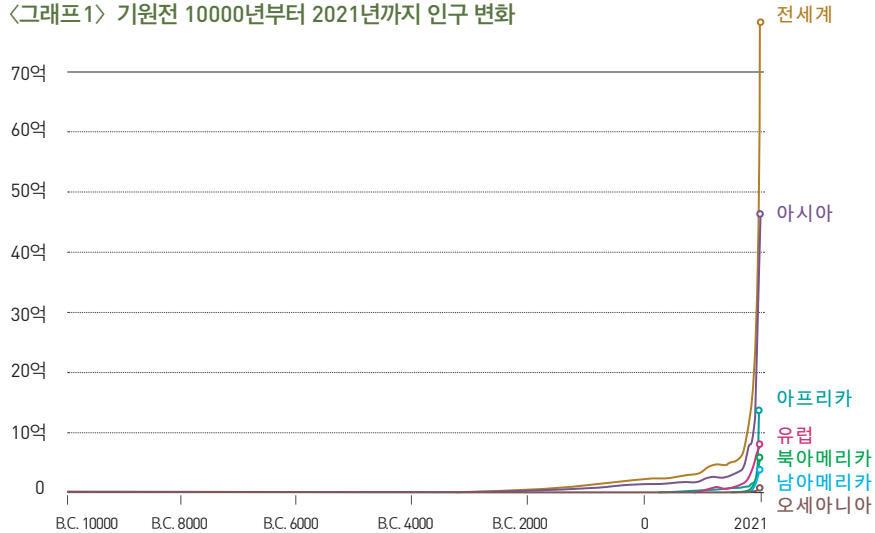
2. 역사 '분쟁' 이면의 역사

이제 동아시아 3국 사이에 경제력의 안정적 서열이 무너진 만큼 상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한경쟁의 긴장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19세기 중엽 이래 150여 년간의 근대 경험이 낳은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서로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서구 제국주의가 지구적으로 팽창하던 이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근대를 버렸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만은 과연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의 역량이 탄탄했던 만큼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다고 지역 내 위계질서가 뒤집히는 형태로 근대를 독특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천 년 넘게 문명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중국은 1842~1942년까지 불평등조약체제 아래 주권을 제한받는 이등 국가로 전락하였고, 급기야 일본의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했다. 청 제국의 복합국가적인 성격을 차치하고 단순 계산하자면, 청 말의 영토 중에 러시아에게 뺏긴 연해주, 소련의 지원으로 독립한 외몽골은 한반도의 11배가 넘는 면적이다. 중국적 세계 질서에서 '유교문명'적 기준으로 넘버2로 존중받았던 조선은 천 년 넘게 문명적으로 무시했던 이웃 나라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이름도 처음 듣는 '식민지'라는 것이 되었다.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에서는 늘 변방이었지만 군사력만큼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도 앞잡아 볼 수 없었던 일본은 천 년이 넘는 문명적 콤플렉스를 바로 서구의 근대를 한발 앞서 수입하며 극복하였고, 최초의 유색인종 제국주의 국가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면서 '탈아(脫亞)'의 우월의식을 100년 넘게 장착했다. 이따금 들쭉시기만 했던 한반도를 처음으로 완전히 점령하였고, 최초로 중국 대륙의 정복이 현실로 다가왔다.

포커스 I

〈그래프 1〉 기원전 10000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변화



세계 인구 그래프(<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opulation>) 데이터를 참조하여 재정리

천 년 전통시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각국 100여 년의 근대 기억이 오늘날 동아시아 삼국이 서로를 싫어하는 시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콤플렉스와 우월의식의 착종이, 그리고 상호 존중과 대등 의식의 부재가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역사학자로서 한중 관계, 넓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직된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히려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돌파구의 키워드는 역설적으로 근대 이전의 역사를 버려야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과 이후는 인류사에서 완전히 다른 시대다. 200년 전 인구가 10억이던 시대와 곧 80억인 시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산업혁명 이후 인류라는 일개 종이 지구 생태계 환경을 바꾸는 시

역사학자로서 한중
관계, 넓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직된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히려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돌파구의
키워드는 역설적으로
근대 이전의 역사를
버려야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과 이후는
인류사에서 완전히
다른 시대다.

대가 되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중국은 좋게 말하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 나쁘게 말하면 한반도에 우환 발생 시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국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는 안보의식을 재고하길 바란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삼국 통일 과정과 백강 전투, 임진왜란은 일본 해양세력에 대한 방어전이였다. 몽골의 한반도 침입과 병자호란은 중원 공략 전 유목세력이 벌인 전초전이였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와 그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보다 일본이 재차 미국의 파트너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을 염려했다. 문제는 지금은 남북 분단의 시대이며,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근대 이전과는 다른 결정적 변수라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동아시아 국가와 주변국들에게도 가장 좋다.

3. 근대 이후와 이전은 '역사' 이상의 격절

미중 갈등을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으로만 보면 양자는 공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글로벌 패권 이전 과정에서 보이듯, 사

포커스 I

실 패권국의 교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근래에 ‘가치동맹’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가 주변 국가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 즉 당=국가라는 ‘당국체제(黨國體制)’가 중국의 특수한 국가 사정(國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당국체제’를 세계 인구의 1/4에서 1/5을 유럽만 한 영토 안에서 먹여 살리고 통합해야 하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합리화한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땅은 넓은데 민도(民度)는 낮으니 강력한 통치가 아니면 중국은 분열하고, 분열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대표자를 선거로 뽑는 의회민주주의와 헌정은 중국 실정에 안 맞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회란 있는 자를 합법적으로 분식(粉飾)하여 대변하는 기만적인 기구가 아니냐? 계급이 아니라 ‘인민’ 즉 모든 사람을 위하는 도덕적인 정치집단(즉 공산당)이 좋은 정치를 하여 ‘선정(善政)’을 펼치는 것이 더 낫다.” 즉 ‘민주’보다는 ‘민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누가 인민을 위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당 내에 있고, 당 권력은 어떤 외부 통제도 받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중국의 ‘예외주의(國情不同)’ 주장이 근대 이전의 중국 역사를 설명하는 데는 (최선이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나름 장점도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중국 예외주의는 근거가 없다. 세계사를 보면 중국만이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1.5배가 넘는 섬에서 1억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일본은 특수하지 않은가? 한번 왕조가 들어서면 400년 혹은 500년을 가는 ‘장기 지속성’의 한국은 특수하지 않은가? 곧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고 200개 가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어떤가?

디지털 화폐와 안면 인식의 시대에 사람 많고 땅 큰 것은 더 이상 결정적인 특수성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이제 통제 가능한 변수다. 인류사의 변화 속도는 19세기에 모뎀 속도였다면, 20세기에는 LTE 속도, 21세기는 5G 속도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사회적 선언이란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밝히는 ‘지향’의 문제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인구학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규정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류는 자신의 ‘지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가치동맹’이 진정한 의미를 띠게 된다. 결국 각 나라 혹은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고, 누구와 손잡을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4. 역사‘분쟁’을 넘어선 미래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인구학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규정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류는 자신의 ‘지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가치동맹’이 진정한 의미를 띠게 된다.

동아시아 각국이 다 마찬가지로이지만, 미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중국 역시 털어내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이 세계 최선진국이었던가 지구상에서 국가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100년 국치의 역사에 대한 트라우마라면, 또 다른 트라우마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이다. 1980년대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장

려하고 다당제까지도 고려했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톈안먼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화를 용인하고 언론을 풀어주면 동란이 발생한다고 믿게 되었다.

당시의 중국공산당과 지금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지지 기반에서도 국제적 위상에서도 전혀 다르다. 오늘날 시진핑 정권 혹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내 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독재와 언론 통제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이룩한 경제 기적처럼, 중국공산당이 아니면 이 정도로 잘 살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 그리고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믿음이 중국 국민들 사이에 있다.

앞서 경제 근대화를 추진했던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부가 그런 존재였는데, 군부독재시대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민주화 하면 나라가 혼란해져 기껏 이룩한 경제적 성과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군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수용하고 문민정부가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망하지 않았다. 민주화는 한국인들의 정신적 해방을 가져왔고 개성과 자유를 자극했다. 안정적인 국정 경험을 우선시하는 보수세력 역시 성공적으로 민주화시대에 안

미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중국
역시 털어내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

작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늘 나라를 반토막으로 쪼갤 것처럼 치열하지만, 그 점이 상호 견제와 사회적 활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여러 내부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는 70년 가까이 몇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경영은 내용상으로는 이미 서구의 것과 아시아의 것을 혼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서구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인류문명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다. 중국이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중화’적 중심이 되어 주위를 ‘교화’하려면, 근대 이전의 모델을 버리고 근대 이후의 아시아 경험을 참고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권력의 연착륙과 단계적 민주화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공평한 경쟁과 분배 정의를 실현하면서 한 단계 진화한—경제·과학·학술 각 방면에서의—사회 성장을 이룩하려면, 민주화로 자유로운 비판을 활성화시켜 내부 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중국인의 지성을 해방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청 말 그 많은 인재들을 과거제도와 팔고문(八股文)에 묶어 두어 박제했기 때문에 문명의 후퇴가 발생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하필 글을 마무리하기 전인 7월 8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 저격 사건이 발생했다. 90년 전에 일어난 1932년 5·15사건[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 암살 사건]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1930년대의 경제 위기와 블록 경제화, 국가통제 강화와 파시즘(fascism)·포퓰리즘(populism)의 대두 등 가지 말아야 할 길의 징조를 살살이 훑어보았다. 머리를 흔들면서

포커스 I

불안을 떨쳐내고 긍정 마인드를 읊조리며 아시아에서 발신하는 아시아만의 새로운 '가치동맹' 시나리오를 꿈꿔 본다.



강진아(姜珍亞, Kang, Jin-a)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도교대학 문학부에서 중국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2005),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2009),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2018), 『東亞華僑資本和近代朝鮮: 廣幫巨商同順泰號研究』(2018) 등이 있다. 주요 역서로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2009),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2009), 『중국 경제사』(2016) 등이 있다.

포커스 II

한중 교류와 역사 현안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 학술 교류와 성과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사대문궤』를 통해서 본 16세기 한중 관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이정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중 수교 30년, 한중 음식 교류 30년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중 도자사(陶瓷史) 연구 교류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 학술 교류와 성과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중 학자들 간의 대화는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출범 이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과제였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한중 간 역사 갈등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어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아가자는 취지였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한·중 고구려 역사연구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1. 한·중 고구려 역사연구 학술회의

‘한·중 고구려 역사연구 학술회의’는 한중 간 역사 갈등을 촉발했던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 양국 정부 간 구두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과 한국의 고구려연구재단이 2년에 걸쳐 번갈아 개최했던 학술행사였다. 재단이 고구려연구재단을 계승했던



제1회 한중 소장학자 학술 교류(2016.7.19~20)

2006년 무렵,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고구려가 중국사임을 강변하는 논조가 더 강화되고 있었고 새롭게 개발된 논리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이 학술행사를 지속하여 양국의 고구려사 인식에서 차이가 뚜렷한 문제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지려 하였다.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열린 학술회의 주제는 ‘고구려 초기의 정치와 사회’, ‘졸본시기 고구려 역사연구’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 학자들은 ‘동북공정’의 논리에 따른 발표를 하였고, 한국 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고구려의 역사상을 설명하며 중국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학술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날 선 공방을 이어나갔다. 합의된 주제 밖의 내용이 언급되기라도 하면, 거센 항의가 나올 정도였다. 어느 학술회의에서도 볼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단절되었던 양국 학계의 학술 교류는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3년 1월 비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재단은 곧바로 비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중국 학자들과 접촉하여 학술적 검토 방안을 모색하였다.

매 회의마다 양측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렸고, 비판을 수용하거나 상대의 인식을 인정하는 일은 없었다. 결국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교류를 외면하면서 학술회의는 중단되었다. 몇 차례 학술회의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술회의 자체로서 얻게 된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국의 학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양국 학자들 모두 의견을 함께했던 것이다. 이는 양국 학계 간의 학술적 논의가 어려웠던 사정에 비춰볼 때, 향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였고 실제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단절되었던 양국 학계의 학술 교류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¹의 발견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3년 1월 비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재단은 곧바로 비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중국 학자들과 접촉하여 학술적 검토 방안을 모색하였다. 4월 11일 경테화(耿鐵華,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원장)와 쑤런제(孫仁杰, 지안박물관 연구원)를 재단으로 초청하여 조사 내용을 듣고 중국 측의 판독안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들은 며칠 뒤에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주최 학술회의(신 발견 集安高句麗碑 종합검토)에도 참석하여 비문 내

1 集安高句麗碑는 '지안고구려비'가 아닌 학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집안고구려비'로 표기했다.

용에 대해 한국의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학자들은 현지에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낸 한국 학계의 연구 역량과 수준에 놀라움을 드러냈고, 한국 연구자들은 발견 과정과 같은 생생한 정보를 얻어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부족한 문헌자료의 공백을 메워주는 귀중한 실물자료임에도 우리 연구자가 이를 직접 살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비를 조사한 현지 연구진을 초청하여 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집안고구려비는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기초적 검토작업이 요구되었는데, 현지 조사자들의 참여로 자료 자체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중 고구려 역사 연구 학술회의’를 통해 마련된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학자들의 대화를 추진해왔던 재단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기도 하였다.

2. 한중 학술 교류의 확대와 정례화 추진

집안고구려비를 통해 물꼬가 트인 한중 학술 교류는 이듬해 대규모 학술 회의로 이어졌다. 2014년은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가 세워진 지 1600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 지안(集安)과 한국의 서울에서 두 차례 학술회의가 열렸다. 지안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중 두 나라뿐 아니라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자들과 일본 학자들도 참석하였다. 한중 학술회의가 열릴 때마다 고구려 도성이었던 지안에서 회의를 열자는 한국 학자들의 바람에 대해 중국 측은 난색을 표하곤 하였다. 그런 지안에서 한중 학자들이 북한과 일

본의 연구자들과 어울려 고구려사를 논하고 고구려 유적을 돌아보았다는 점에서 양국의 학술 교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재단은 학술 교류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2016년 7월, 양국 소장학자들이 각자의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교류를 다지는 학술회의가 중국 통화(通化)에서 열렸다.

장차 양국 학계를 이끌어갈 신진학자들의 발표 자리였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향후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만큼 참가 연구자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회의가 끝나고 진행된 지안의 고구려 유적답사는 한국 신진학자들의 역사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 회의는 중국의 통화사범학원이 중국 측 파트너로서 재단과 번갈아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중앙의 중국사회과학원이 아닌 중국 동북3성 현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단은 학술 교류 네트워크의 다각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듬해에는 두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의 진행을 취소하면서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진은 세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대개 고구려사를 전공으로 삼고 있으며 주제도 다양해졌다. 과거와 달라진 이러한 추세에 비춰볼 때, 한중 학술 교류가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학술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중국 학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의 왕래가 단절되기 직전인 2020년 1월, 재단이 중국역사연구원(中國歷史研究院)과 체결한 학술 교류 협정은 향후 한중 학술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중국의 역사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과학연구원의 위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구이다. 몇 차례의 연기 끝에 올해 하반기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첫 학술회의의 주제는 ‘한·중관계사의 회고와 전망’으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비교적 덜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국 간 학술 교류가 재개되는 데 적절한 상대이자 소통이 가능한 주제라는 점에서 향후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학술 교류의 필요성 공감과 새로운 연구주제 개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분야의 개척은 재단이 창립 초기부터 우리 학계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온 과제였다.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한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연구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전 29권), 『譯註 中國 正史 東夷傳』(전 4권), 『譯註 翰苑』 등이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묘지(墓誌) 등 석각(石刻)자료의 연구와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역사연구원과 체결한 학술 교류 협정은 향후 한중 학술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유민(遺民)이 남긴 묘지는 문헌사료의



‘고대 동아시아 석각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제학술회의(2016.8.24~25, 동북아역사재단)

한계를 보완해 줄 새로운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시안(西安)·뤄양(洛陽)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출토 정황은 물론 원자료의 상태조차 알기가 쉽지 않다. 그마저도 중국 연구자의 간략한 보고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해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재단이 방문학자로 초청한 중국 연구자가 새로운 묘지자료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고, 여기에 마침 같은 자료를 살피고 있던 재단 측 연구자가 있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재단이 제기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 측이 화답하면서 12월 뤼양에서 학술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한중일 3국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재단에서 열린 ‘고대 동아시아 석각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제학술회의에는 3개국 20여 명의 연구진이 참가하여 최근 발견된 자료를 소개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말 그대로 석각자료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자리였던

동북아역사재단이
그간 지속해온 학술
교류를 살펴보면
한 번 물꼬를 트고
나니 어떤 계기가
생기면 자연스레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곤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상황이
종식되고 난 뒤
한중 학술 교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것이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소개된 한국 학계의 연구내용은 중국과 일본 연구진이 한국의 석각 연구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하였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한국 학계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2017년 4월 중국의 학술잡지 『중국사연구동향(中國史研究動向)』(2017-2)은 「고대 동아시아 비각 연구위 신방향(한국) 국제학술연토회 간황(“古代東亞碑刻研究新方向”(韓國) 國際學術研討會簡況)」이란 제목으로 이 학술회의를 소개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펴내는 이 잡지는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전문 학술지로, 중국 학계가 이 학술회의 개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려준다. 한중일 3국의 학술회의는 한 차례 더 열렸다. 일본 측이 주관하여 2018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회의(隋唐洛陽と東アジア)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소득도 있었다. 고구려 유민은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동북 공정’식 이해에서 거론되는 주제이며, 중국 학계는 이를 자발적 이주를 의미하는 ‘이민(移民)’의 논리로 설명해 왔다. 한국 학계가 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별다른 호응이 없던 차에 학술회의 총평 시간에 일본 측 좌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의 이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포커스 II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중국 연구자들이 한중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성사된 학술회의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단이 그간 지속해온 학술 교류를 살펴보면 한 번 물꼬를 트고 나니 어떤 계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곤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상황이 종식되고 난 뒤 한중 학술 교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연구주제 개발에도 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 묘지자료의 연구는 그 하나의 사례가 될 만하다. ‘한·중 고구려 역사연구 학술회의’가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한중일 3국의 국제회의 석상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학술적 타당성을 짚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성제(李成制, Lee, Seong-j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5~6세기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로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와 중국 북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대외관계사를 연구해 왔으며, 고구려성의 조사와 연구, 묘지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관심 분야를 넓히고 있다.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애국주의 교육기지인 중국 박물관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단계부터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건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박물관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14·5 계획(2021~2025)에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공공문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박물관 증설과 디지털화 추진, 중국 문화의 영향력 강화, 문화관광의 융합발전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이후 중화문명선전공정을 시작하여 그동안 진행해온 역사 공정들의 결과물을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중국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적 정비와 관광자원화, 유적전시관과 박물관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작업을 강화했다.

동북3성 지역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중국의 문화정책은 한국 고대사 관련 유적과 박물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동북진흥전략과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에서 이 지역 소재 고구려 유적을 공원화하거나 풍치지구(風致地區)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지역 박물관을 정비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구려, 발해 유적 안내판과 표지석, 박물관의 전시패널, 유물 설명문, 지도 표기 등에 중국의 신중화주의적 역사인식이 반영되었다.

동북진흥전략과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에서 고구려, 발해 유적 안내판과 표지석, 박물관의 전시패널, 유물 설명문, 지도 표기 등에 중국의 신중화주의적 역사인식이 반영되었다.

박물관은 유물과 역사연구를 종합 정리하여 가치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므로, 중국의 자민족중심적 역사해석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 내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장인 박물관은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교육현장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전국 각지의 주요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정하고 청소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중국역사, 중화민족주의, 애국주의, 공산당사(共産黨史) 등의 교육을 시켜왔다. 최근 들

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더 매진하고 있다. 박물관교육을 통해 소수민족들은 모두 중화문명의 영향 아래 발전하여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의 일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화문명의 세계적 위대성을 주창하면서 자민족중심의 자의적인 역사인식을 전파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 박물관들도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중화민족다원일체론, 중화민족공동체론을 물질문화로 보여주어 애국주의교육을 실현하는 장이다. 고구려 관련 전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경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중국사’라는 입장에서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의 과거사와 현황, 그리고 미래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동북공정(2002~2007)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 지역 박물관에서는 동북공정 참여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패널로 게시하여 한중 간 갈등을 야기했었다. 박물관 전시에는 기획목적과 의도, 역사인식, 그리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동북공정 종료 이후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어떤 내용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7~2019년에 중국 동북 지역 박물관의 고구려 관련 전시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동북3성 지역
박물관들도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중화민족다원일체론,
중화민족공동체론을
물질문화로 보여주어
애국주의교육을
실현하는 장이다.
고구려 관련 전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국 입장에서 정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박물관 전시패널에 반영된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동북3성 지역 박물관 가운데 고구려사 관련 전시를 하는 대표적인 곳인 지안(集安), 테링(鐵嶺), 랴오닝성(遼寧省) 박물관을 주 대상으로 하되, 다른 소규모 박물관도 포함하여 전시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구려사 중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박물관 패널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구려 관련 전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가 현도군 경역 안에서 건국했고 그 관할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안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고구려인이 모여 사는 구역에 고구려현을 설치하여 현도군 관할하에 두었고, 고구려현 경내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적은 전언(前言) 패널을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된다. 제1전람관에도 “고구려현이 설치됨으로써 고구려인들이 한(漢)의 편호제민(編戶齊民)이 되었다”고 쓴 패널을 게시해 놓았다. 랴오닝성, 테링, 번시(本溪) 박물관, 그리고 2021년 12월에 개관한 선양(瀋陽)시박물관에도 같은 내용의 패널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지』, 『후한서』에 따르면 주몽의 고구려는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을 신빈(新賓) 지역(제2현도군)으로 쫓아낸 후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다.

둘째, 동북공정 실시 초기에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패널을 게시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 소수민족정권’ 혹은



지안박물관 전경

‘중국 고대 변강소수민족정권’이라고 기재해 놓았다. 한중 구두양해 5개 조 합의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으로 지방정권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국의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은 중의적(重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고대시기에 중국 동북 지역에 있었던 소수민족정권’이라 하면, ‘중국 영역인 동북 지역에 있었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변강소수민족정권’에서의 변강은 중국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고, 중원 왕조와 다른 세력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도 전자처럼 이해하면 지방정권과 동일한 표현이 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조공책봉을 통한 고구려의 예속을 입증하기 위해 속국론, 번속론, 종번체제론 등의 이름으로 이론을 더 강화해 나갔다. 최근에는 특히 종번체제론을 주창하면서 고구려의 종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셋째, 고구려가 한(漢) 이래 중원 왕조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안, 테링, 번시, 라오닝성 박물관 등에서 모두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과 삼국이 있던 시기에는 조공책봉제가 완성되지도 않았다.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던 대상은 전연(前燕)인데, 그것은 수도인 국내성이 함락된 후 탈취된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을 뿐이다. 남북조시기에는 고구려가 필요할 경우 남조와 북조에 모두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주장처럼 고구려가 시종 중원 왕조의 지배권 아래 있으면서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조공책봉을 통한 고구려의 예속을 입증하기 위해 속국론, 번속론, 종번체제론 등의 이름으로 이론을 더 강화해 나갔다. 최근에는 특히 종번체제론을 주창하면서 고구려의 종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지 아직까지는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내용만 적어 놓고 있다.

넷째,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서는 다민족 기원설을 채택했다. 동북공정 실시 전후 시기에는 중원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고구려를 건국했으

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하는 주장이 난무했다. 이때 고구려의 족원(族源)으로는 증원 북방의 맥족(貊族), 고이족(高夷族), 염제족(炎帝族), 은상족(殷商族)으로 보는 설들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 학계의 논리적 반박과 중국 내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아 이 설들이 점차 수그러들고, 대신 예맥족, 고이족, 옥저, 한(漢), 한(韓)이 섞여 있는 다민족국가였다는 다민족기원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2004년경 선양의 라오닝성박물관에서는 고이족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패널을 게시하였으나 이전 신축한 라오닝성박물관 전시에는 이런 패널이 사라졌다. 테링박물관에서 테링시의 청동기시대 후기를 맥 집단의 문화로 규정하면서도 맥의 문화가 고구려와 부여에 영향을 주었다고만 하고 고구려의 직계 선조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도 학계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 유민 다수가 한족으로 융합되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안박물관 제1전람관 도입부에는 “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이 산시(陝西), 장쑤(江蘇), 간쑤(甘肅) 지역 등으로 옮겨 갔다”고 적어 고구려 멸망 후 재기하지 못하도록 호강(豪強)한 자 2만 8,000호를 강제로 당(唐)으로 사민(徙民)시킨 사실을 마치 유민들이 자발적으로 옮겨간 것처럼 서술해 놓았다. 또한 이들이 한족(漢族)과 기타 민족으로 융합되어 갔다고 서술했다. 이는 신라로 들어가거나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 남아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보덕국, 발해, 고려를 건국하는 등 고구려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사 속에서 고구려의 계승과 부흥을 실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동북공정 실시 초기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역사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중국사 속의 고구려를 보여주는 전시 방식

중국 동북3성 지역 박물관의 고구려 관련 전시에서는 다른 면에서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사 속의 고구려사를 보여주는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 내용 전체를 중국사를 기준으로, 중국사 시각에서 정리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중국 전체 역사에 해당 지역의 역사가 속해 있었다고 인식하게 하는 전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안박물관의 경우, 고구려 전문박물관답게 고구려 유물을 가장 많이 전시하고 있다. 고구려사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전성기 고구려 문화의 특징과 수준을 유물을 통해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사 시각에서 정리하고 전시함으로써 고구려 역사는 중국사, 고구려 문화는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패널과 전시유물을 중국사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사 속의 고구려 역사, 고구려 유물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고구려와 중원 왕조와의 관계, 중원 왕조로부터의 정치·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설명문과 연표를 작성하고 관

중국 동북3성 지역 박물관의 고구려 관련 전시에서는 중국사 속의 고구려사를 보여주는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전시 내용 전체를 중국사를 기준으로, 중국사 시각에서 정리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중국 전체 역사에 해당 지역의 역사가 속해 있었다고 인식하게 하는 전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련 유물을 전시하는 식이다. 예컨대 제1전람관의 제목인 한당고국(漢唐古國)은 ‘한당시기 동북 지역에 있었던 옛 나라’란 의미지만, 관람객의 시각에서 보면 ‘한당시기 중국의 옛 나라’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부각시키며 고구려 문화를 중화문명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명강국(文明強國)을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안박물관의 제1전람관 초입부에는 칠성산(七星山)고분군 출토 삼족기(三足器)를 독립장에 전시해 놓았다. 고구려의 특징적인 토기인 사이옹(四耳瓮)을 대표 유물로 보여주지 않고, 전형적인 중국 유물인 삼족기를 전시한 것은 고구려가 이른 시기부터 중국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를 상징하는 그림의 하나로 보는 무용총의 사냥그림을 한나라의 수렵도와 나란히 게시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조한다. 고구려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보다는 한 문화의 영향을 알리는 데 더 주력한 전시 방식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고구려의 역사적 비중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이다. 랴오닝성박물관의 고구려실은 매우 빈약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부각시키며 고구려 문화를 중화문명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명강국을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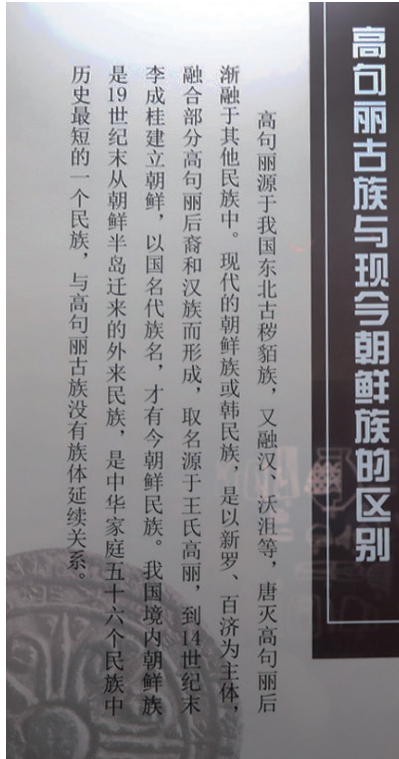
포커스 II



랴오닝성박물관의 고구려 전시장과 패널

한 편이다. 통일제국인 수당(隋唐)과 장기간 전쟁을 치를 정도였던 고구려의 역사적 위상을 설명하는 패널이나, 치열한 전장이 되었던 랴오닝성 내 고구려 산성 관련 사진을 전혀 게시하지 않았다. 후연(後燕)의 행정지도에 고구려 영역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했고, 요동지방 지배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에 개관한 선양시박물관도 마찬가지다. 랴오닝성 안에 중요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유물들로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고구려를 동북 지역에 존재하던 여러 지방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연변박물관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서는 전시에서 고구려 자체가 지워진듯 보이지 않는다.

동북3성 지역 박물관의 전시 내용에서는 고구려와 한국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고구려 전문박물관인 지안박물관조차도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사 및 수당과의 전쟁, 남북한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테링박물관의 패널 내용

고구려 고족(古族)과 조선족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 국내성 도읍기 유적·유물 중심 박물관이긴 하지만, 고구려의 전체 영역과 역사를 고려할 때, 한반도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사의 실제 전개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고구려 전문박물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테링박물관에서는 고구려와 조선족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관련 유물도 없는데 생뚱맞게 별도 패널로 만들어 게시해 놓았다. 이는 고구려-한국-조선족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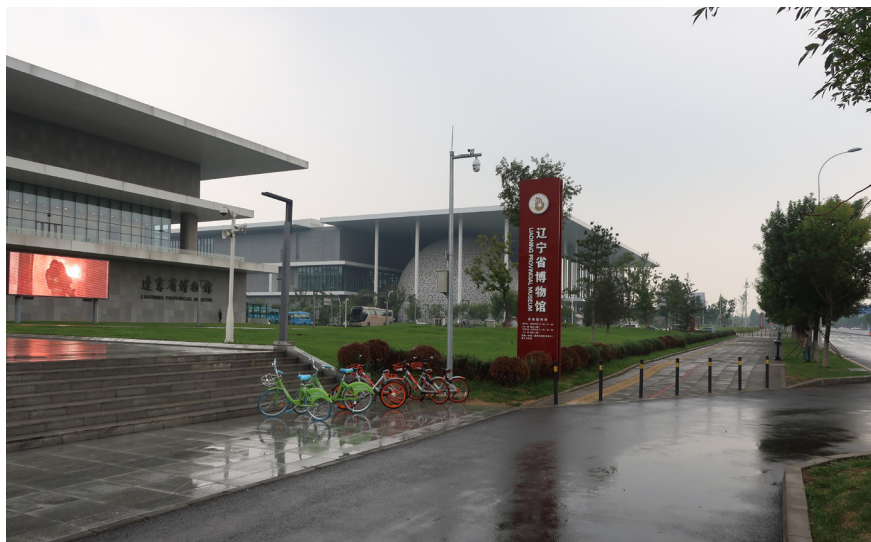
4.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중화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각 지역 박물관 소수민족 관련 전시를 통해 소수민족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두 중화민족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의 문화도 중국의 전통문화로 수렴되었으며, 자신들의 과거사는 모두 중화민족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물관 관람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성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중화민족 대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중국 동북 지역 박물관 역시 중국 중심 역사인식을 전파하는 곳이다. 이 지역 박물관의 고구려 전시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고구려 역사의 의미를 알리거나, 그 문화 자체의 고유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정치적·문화적 지배권과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 박물관 역시 중국 중심 역사인식을 전파하는 곳이다. 이 지역 박물관의 고구려 전시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고구려 역사의 의미를 알리거나, 그 문화 자체의 고유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정치적·문화적 지배권과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고구려 관련 전시를 돌아보고 나오는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인식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인들이 모

포커스 II



랴오닝성박물관 전경

두 자고 이래 하나였다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과 중화민족공동체론을 입증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박물관은 중국 학생들과 시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박물관에서는 비디오 상영과 각종 설명패널, 유물 사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체험학습장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하고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중국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패널과 유물을 통해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애국주의, 중화민족론 등을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있다. 동북 지역 박물관 전시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일정한 패턴을 볼 때, 전시방향에 대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지고, 전시 내용에 대한 사전 검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중국 문화산업의 특징 중 하나

우리나라의 지역 박물관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국가중심적, 자민족중심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박물관만 돌아보고 나와도 한국사의 전체 체계와 그 지역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관람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 국가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산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지역 박물관은 철저히 중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역사를 살핀다. 지역문화의 독창성보다는 중원의 선진문화가 지역에 유입되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 과거에 중원 왕조와 별개 국가였더라도 현재 중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의 역사는 중화대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중국사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박물관을 관람하든 전시를 다 보고 나오면 중국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나오는 것이 된다. 우려되는 것은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의 자의적인 역사인식이 중국 학생들과 국민,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에 대한 중국식 해석이 중국인들과 기타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왜곡된 내용의 한국 고대사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데 우리나라의 지역 박물관은 어떠한가? 한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그 속에서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필 수 있는 전시가 많지 않다. 대부분 간단한 지역 소개

포커스 II

와 함께 유물·유적 위주의 전시와 설명에 그치고 있다. 박물관 전시를 통해 국가중심적, 자민족중심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문제는 관람객들이 박물관 전시를 통해 한국사의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서나 기타 서적을 통한 역사교육보다 유물과 유적을 통한 시각적 교육과 체험적 교육은 역사를 훨씬 쉽고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다. 박물관만 돌아보고 나와도 한국사의 전체 체계와 그 지역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관람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물관과 학교 교육, 중앙사와 지역사, 한국 문화와 지역 문화를 각각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관람객들에게 지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자주성,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다양한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현숙(金賢淑, Kim, Hyun-soo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사 전공자로서 고구려 정치사와 사회사 및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박물관의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의 전파 장소로서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대문궤』를 통해서 본 16세기 한중 관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이정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조선의 생존 전략 기록, 『사대문궤』

『사대문궤(事大文軌)』는 23권으로 구성된 외교 문서집이다. 간행 당시의 54권이 모두 남아 있지 않아 전체 문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선과 명이 주고받은 1,041건에 이르는 외교 관련 공문서가 수록돼 있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정유재란 시기 조선과 명의 군사 협력, 정응태 무고사건, 세자(광해군) 책봉 등 조명 관계에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식적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누르하치 세력에 대한 동향 및 명측 움직임 등 건주여진(建州女眞)과 관련한 양국의 문서들도 확인되는데, 이는 후금의 흥기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게다가 이 시기 일본에 대한 기록들도 확인되는 만큼 당시 동북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핵심 문헌자료



이정일 편, 『번역 사대문궤』 1, 2020, 동북아역사재단

『사대문궤』의 형식상 특징은 발신 내용과 수신 내용을 한 세트로 갖춘 문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선과 명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구축했으며 합의점을 모색해 갔는가를 양측 입장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대문궤』는 1934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하고 2002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壬辰倭亂 史料叢書: 對明外交』로 다시 편찬한 것이다. 『사대문궤』의 전반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사대문궤』의 형식상 특징은 발신 내용과 수신 내용을 한 세트로 갖춘 문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선과 명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구축했으며 합의점을 모색해 갔는가를 양측 입장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발신 측과 수신 측 모두 의사 결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포커스 II

〈표1〉 『사대문계』의 목차와 주요 내용

책수	권수	문서 작성시기	분량	주요 내용
1책	권3	1593년 1~3월	72건	평양 수복, 행주대첩, 한성 수복 준비
2책	권8	1594년 2~4월	49건	명군 지휘부의 강화 수용 압력과 조선 조정의 대응
3책	권12	1594년 11월~1595년 3월	35건	
4책	권17	1596년 6~10월	48건	-책봉사 파견에 대한 조선과 명의 이견 -표류민 관련 조선과 유구의 자문
5책	권19	1597년 4월	29건	-경유재란 발발과 명의 파병
6책	권20	1597년 4~5월	29건	-명에서 보내는 군량 수송 문제 논의
7책	권22	1597년 7~9월	60건	-조선의 군량 지원
8책	권23	1597년 9~10월	36건	
9책	권24	1597년 10~12월	51건	
10책	권28	1598년 7~10월	49건	정응태 무고사건과 조선의 대응
11책	권30	1598년 10월~1599년 2월	65건	
12책	권32	1599년 윤4~6월	31건	전후 조선의 대일 방어 대책
13책	권33	1599년 7~9월	61건	명 태감의 광세(鑛稅) 징수
14책	권35	1600년 1~5월	61건	-명군 잔여 병력 철수
15책	권36	1600년 5~6월	17건	-명 교관의 잔류 철회
16책	권37	1600년 6~9월	12건	-중강개시 협파 문제
17책	권42	1603년 4~7월	45건	-조선 측 세자 책봉 요청과 명 조정의 거부
18책	권43	1603년 6월~1604년 3월	53건	-조선 변경에서의 채삼(採參) 및 월경
19책	권45	1604년 8월~1605년 7월	53건	-누르하치 세력의 동향에 대한 조선의 파악 및 명의 반응
20책	권46	1605년 7월~1606년 4월	56건	
21책	권47	1606년 1~12월	70건	
22책	권48	1607년 4~11월	31건	
23책	권51	1608년 7~11월	28건	
합계			1,041건	

조선의 대명
외교전략 중 하나가
정보력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자국의 입장과 논리를
함께 제시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에 하나의 의제가 어떤 상하 라인을 거쳐 어떻게 결정됐고 상대측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명시한 경우가 다수다. 예를 들면, 이상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¹

- 신은질이(信隱叱已) → 한명련 → 이시언 → 조선 국왕 → 총독병부·요동도지휘사사 → 명 조정
- 거요질(居要叱)·지여무(知汝武)·사아가(沙阿加)·산지(山之) → 정승헌 → 김응서 → 조선 국왕 → 총독병부·요동도지휘사사 → 명 조정

일본군 포로들을 공초하고 얻은 최신 정보를 한명련·정승헌이 이시언·김응서에게 보고했고, 이들은 다시 조선 국왕에게 보고했다. 조선 국왕은 최전방의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의제를 명군 총책인 총독병부나 대(對)조선 외교전담부서인 요동도지휘사사를 거쳐 명 조정에 전달하고, 명 조정은 필요에 따라 내부의 상하 라인을 거쳐 조선 국왕에게 회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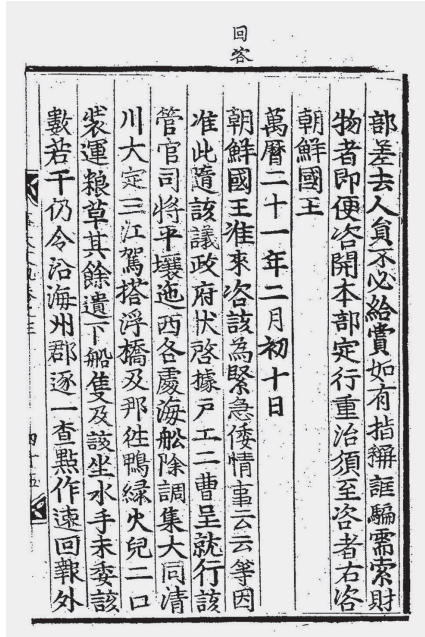
『사대문궤』에는 조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최신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국에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서가 많다. 조선의 대명 외교전략 중 하나가 정보력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전달만이 아

1 이정일 편, 『편역 사대문궤』 2, 2020, 동북아역사재단, 164~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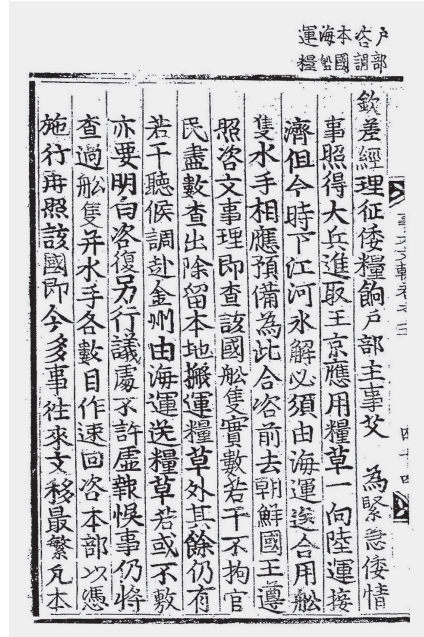
나라 자국의 입장과 논리를 함께 제시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둘 때, 명 중심의 역내 질서를 인정하는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풍부하다.

필자는 이러한 『사대문궤』의 형식상 특징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의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대문궤』에는 조선의 대일 전략이 조정의 정책 담당자들과 최전방의 전투 지휘관들 간 긴밀한 소통 속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경(北京)의 명 조정 및 조선에서 싸운 명군 지휘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많다. 『사대문궤』 역주작업을 통해서 조선의 승전·종전 해법은 무엇이었고, 조선이 명과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대일 전략을 공유하고 절충했는가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 ‘국가’ 조선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명과의 관계를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위적 국방력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화연구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 ‘국가’ 조선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명과의 관계를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위적 국방력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화연구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대동강과 압록강 등지의 하구에서 해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만 조선의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회답의 자문. 『事大文軌』 권3(영인본 1책, 91쪽), 萬曆 21년 2월 14일 회咨



1593년 1월 평양성 수복 이후 명나라 호부에서 자국 군대의 군량 운송을 위해서 조선에 선박과 선원의 동원을 요청하는 자문. 『事大文軌』 권3(영인본 1책, 90쪽), 萬曆 21년 2월 10일 戶部咨調本國海船運糧

왜란이 갖는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명의 전쟁, 임진왜란

현재 한중일 사료 가운데 상대적으로 명 측 공문서 자료가 부족한 데, 『사대문귀』에는 명 조정이 조선 조정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명의 대조선 전략과 대일 전략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상당수 수록된 사실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대단히 고무적이다. 명 조정은 1593년 상반기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맞이하자 군사 개입의 최소화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1593년 상반기에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내려가자 명군은 약 5,000명 병력만 남긴 채 하반기에 압록강을 건너 되돌아갔다. 이듬해인 1594년 2월 만력제(萬曆帝)는 강화 협상에 집중하되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서 절강(浙江)·천진(天津) 등 동남부 해안 전역에는 경계 강화를 명하고 조선에는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며 확전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9월 조선에 잔존한 자국 부대마저 완전히 철수시켰고, 12월 책봉사(冊封使) 파견을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의 재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선과 협력하며 유사 시 즉각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책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동시에 조선에 대해서 조선군의 부대 구성, 병력 배치, 주둔지, 지휘관의 직책과 성명까지 요청하면서 대일 방어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1595년 2월에는 조선 조정에 군사 관련 정보뿐 아니라 명군 재투입 시 조선의 군량 조달 상태, 일본군 포로

및 피로인 처리 문제, 훈련, 병종, 군수 등 보다 포괄적인 대일 군사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즉, 명은 개입하되 국익에 따라 개입 수위를 조절하는 강온전략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다. 강화 협상 위주로 하되 군사적 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 대응력 증강을 요구하며 재파병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중 전략으로 확전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 기본 방침은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협상 결렬 선언까지 약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1595년 상반기 책봉사 파견 이전에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중앙 관리를 부산으로 파견해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면유(面諭)하는 등 압박하면서 동시에 사후 대비와 만약의 사태를 위한 조선의 자체적인 방어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심지어 1596년 하반기 협상 결렬 직후에도 명 조정은 일본군의 재침을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 일부 병력만을 압록강 부근에 대기시키되 조선 스스로 재침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자국의 동부 해안 방어에 만전을 기했다.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진행 중일 때나 강화 협상의 결렬로 전쟁 재발이 가시화되는 때조차도 명 조정은 조선으로의 파병보다 자국 동부 해안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간주한 것이다. 즉,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수개월 전까지 명은 협상 타결과 군사적 대비라는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서 재파병에 대단히 신중을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조선의 전쟁, 임진왜란

조선은 이러한 명 중심의 대일 전략을 인정하면서도 최전방의 최신 정

보를 획득할 때마다 명과 공유하며 화친과 재침의 두 목소리를 내는 일본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전달하고 강화 협상이 일본군의 기만책이라는 것을 핵심요지로 하는 주전론(主戰論)을 강조했다. 이런 목적으로 남해안 최전방에서 재침을 준비하고 국지적으로 도발하는 일본군의 동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명에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강화 협상을 명분으로 일체의 교전을 금지한 명이 외면하고 싶은 전장의 현실, 즉 강화 협상과 재침공 시도를 병행하는 일본군의 이중 전략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주전론에는 서해안·전라도 재침과 같은 북경 방어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담겨 있었기에 명 조정에서 쉽게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조선과는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면서 명과는 강화 협상을 진행하는 일본군의 이중적 자세에 대응하여 주전론을 외교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대문궤』를 통해서 조선이 주전론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명군의 군량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명은 재파병 시 조선에서 군량과 마초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조선은 전쟁으로 인한 피폐함과 더불어 조선군에 대한 군량 조달의 시급성을 이유로 명군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일본과의 국지적인 군사 충돌 속에서 거둔 전과를 알림으로써 여전히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전쟁의 현실을 명에 확인시켰고 명군의 재파병 시 기병보다는 보병 중심의 병력 구성을 제안하거나 기병과 보병의 배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 달리 말하자면 조선은 주전론을 중심으로 명과의 군사 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일 전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명 외교를 펼친 것이다. 임진왜란 시기 한중관계의 상호 작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해 본다.

4. 16세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창

『사대문궤』를 통해서 우리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명의 대일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을 재조명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하루바삐 침략군을 완전히 몰아내어 기존의 지역 질서를 회복해야 했고, 명의 경우 자국으로의 확전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존의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야 했다. 이러한 시각 차이의 근본 원인이 침략국의 군대와 우방국의 군대 모두 자국 영토에 모여 있는 조선의 안보 상황과 외국으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한 명의 안보 상황이 다른 데 기인했음을 『사대문궤』 속 외교문서들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명은 강온의 이중 전략으로 확전 차단과 기존 지역 질서의 안정에 주력했고 조선은 명과의 공조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전론을 견지하면서 자체적인 대일 군사력을 신장시킨 사례를 『사대문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이 전적으로 명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방식의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대문궤』 역주 작업은 조선과 명 이 자국의 안보 수호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소통했으며, 이러한 협력에서 형성된 ‘상호 작용’이 당시 동북아 대외 관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포커스 II

『사대문계』 역주작업은 조선과 명이 자국의 안보 수호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소통했으며, 이러한 협력에서 형성된 ‘상호 작용’이 당시 동북아 대외관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학적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단 사업의 연구력 제고에도 일조할 것이다.



이정일(李廷一, Lee, Jeong-il)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UCLA에서 조선시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16~17세기 조선시대 대외관계 및 동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성과는 「조선의 對日 전략에 대한 일고찰: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직후(1593.07~1594.02)를 중심으로」(2021),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일 육상 전략 강화-1596년 강화협상 결렬 전후를 중심으로」(2022) 등이다.

한중 수교 30년, 한중 음식 교류 30년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음식의 맛, 가깝지만 다른 나라

적지 않은 구미(區美) 사람들은 요사이도 한국인·일본인·중국인이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한다. 생김새도 비슷할뿐더러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식사 때도 젓가락을 사용하니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중일 사람들의 식성과 식사방법은 결코 비슷하지 않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는데 비해 한국인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한다. 주식도 약간 다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자포니카(Japonica) 계통의 쌀밥을 즐겨 먹지만 중국 남부 사람들은 인디카(Indica) 계통의 쌀밥을 주로 먹는다. 이와 달리 중국 북부 사람들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다. 좋아하는 향신료도

다르다. 한국인이 마늘을, 일본인이 와사비를 좋아한다면, 중국인은 상차이(香菜, 고수)를 즐겨 먹는다.

일찍이 고병익 교수는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구미 사람들이 생각하듯 비슷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이전에 서로 내왕·접촉·교류·교역을 빈번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았다. 국가 사이의 음식 교류는 주로 집단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으므로 인적 교류가 빈번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의 인적 교류는 개항과 서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세기 들어와서 한반도에는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는 한국인이, 일본 열도에는 한국인과 중국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중국 북부의 지역 음식과 일본 음식이, 일본 열도에 한국 음식과 중국 남부의 지역 음식이,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에 한국 음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한중일 세 나라의 음식 교류는 제국·식민지·반식민지의 정치·경제적 차별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체결된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음식 교류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1992년 8월 24일 체결된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음식 교류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수교 직후의 음식 교류는 비대칭적 구조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싼값의 중국 농수산물을 수입했고, 중국은 돈 많은 한국인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1997년 IMF 체제 이후 조선족 동포들과 한족들이 중국 음식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고, 새로운 음식 교류가 생겨났다. 2010년대 이후 한중 음식 교류는 한국의 공장제 식품의 수출과 중국 식재료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의 한국 음식, 서울의 중국 음식을 중심으로 한중 음식 교류 30년을 살펴본다.

2. 수교 후 베이징의 한국 음식

1995년경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만 명이 넘었다. 당시 베이징의 한국인 대부분은 본토의 중국 음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익숙했던 중국 음식과 베이징의 중국 음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탕수육·유산슬·라조기와 같은 음식을 메뉴판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설사 찾았다고 해도 그 맛은 단맛보다 짠맛이 더 강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상차이가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 있어 곤욕을 치른 한국인이 적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중국 음식 하면 짜장면을 떠올렸는데, 베이징의 수많은 음식점에서는 짜장면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 화북 지역의 여름철 대표 음식이었던 짜장면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이징에 살면서 한국식 짜장면을 먹

고 싶은 욕망을 지닌 한국인이 많아졌다. 서울에서 태어난 화교 3세 부부가 이런 사정을 눈치 채고 1996년 베이징의 중심가에 한국식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 중국 음식점은 베이징에 사는 한국인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한국식 중국 음식점이 베이징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자,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조선족 동포 중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한국식 짜장면집을 여는 사람이 생겨났다. 지금은 눈에 거의 띄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베이징 곳곳에서 한국식 중국 음식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식 중국 음식점이 등장하기 전인 1995년에 베이징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한국 음식점은 불고기집이었다. 한중 수교 이전인 1989년 중국 정부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선수촌아파트에 한국식 불고기집을 개업해 달라고 한국의 한 기업에 부탁했다. 이 한국 불고기집은 아시안게임을 끝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고, 돈 많은 베이징 사람들에게는 핫 플레이스였다. 서울의 불고기집과 메뉴와 가격이 비슷했지만, 베이징의 부유층은 지폐가 잔뜩 담긴 가방을 들고 와서 부유함을 과시했다. 그러자 1990년대 중반부터 베이징 중심가에는 고가의 한국식 불고기집이 여럿 문을 열었다. 하지만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자 베이징의 한국식 불고기집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1998년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외환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고, 베이징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 전과 달리 두둑해졌다. 이 틈새를 중국식 한국 음식점이 파고들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2002년 조선족 동포가 운영한 한나산(漢拿山)이다. ‘한나산’의 창업자는 한중 수교 이듬해에 베이징의 한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 관광객 가이드로 돈을 꽤 벌었다. 그는 1995년 베이징의 한 대학 골목에

조선족 음식점을 개업했다. 근처에 있던 한국식 불고기집에 비해 값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한국 유학생이 주된 고객이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그에게 기회였다. 그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한국 음식점 수준으로 하되, 가격을 베이징 수준으로, 한국인과 조선족 동포가 좋아하는 융합의 맛을 택했다. 2000년대 초반 한나산은 중국식 한국 음식점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진 ‘한류(韓流)’라는 단어는 1997년 여름 베이징 라디오의 ‘서울 음악실(漢城音樂廳)’에서 한국 대중가요 마니아들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한류 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한류 붐 속에 한국 음식이 들어 있었다. 특히 2005년 중국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대단한 인기를 얻으면서 적지 않은 베이징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식에 관심을 보였다. 앞서서도 소개한 ‘한나산’ 외에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한국식 비빔밥·삼계탕, 심지어 부대찌개 등을 판매했다. 2014년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얻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프라이드치킨집이 인기를 얻었다. 중국 대기업 중에서는 아예 비행기를 전세 내서 자사의 직원을 한국에 보내 ‘치맥’ 파티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전후에 한국의 많은 식품 대기업은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노렸다. 수교 초기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식품기업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2016년 사드배치사건 이후에도 오리온의 초코파이, 농심의 신라면, 롯데제과의 빼빼로 등은 중국 내에서 안정된 영업을 유지했다. 이들 식품회사는 현지 인력의 채용, 맛과 마케팅 전략의 현지화를 통해서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누렸던 한국 음식점은 중국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조선족 동포 대다수가 한국으로 이주한 상황에서 한국 음식의 맛은 중국인, 그중에서도 한족의 입맛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한국인 집단거주지에서만 명맥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치킨집과 커피숍 역시 한때 인기를 누렸지만 현지화의 길을 걸지는 못했다.

현지화에 성공 못한 외국 음식점은 정치·경제적 상황이 바뀌면 바로 소멸하고 만다. 일본 음식은 2010년대 이후 날 생선을 먹지 않던 중국인의 취향을 뛰어넘어 건강음식이라는 이미지로 매우 빠르게 현지화의 길을 걸었다. 오늘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의 일식집에서는 중국인 요리사가 요리한 ‘사시미’를 판매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중국인은 한국 음식의 맛에 한때 열광했지만, 자신들 문화 속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중이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중국인은 한국 음식의 맛에 한때 열광했지만, 자신들 문화 속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중이다.

3. 수교 후 서울의 중국 음식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고급 중국 음식

은 ‘청요리’로 불리며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했다. 1882년 이후 한반도로 이주한 화교들 대부분은 산둥(山東)반도 출신이었다. 청나라 초기부터 산둥반도의 요리사가 베이징의 자금성에서 황제의 식탁을 책임졌고 덩달아 산둥요리의 수준도 높아졌다. 그 영향으로 인천과 서울에서 개업한 청요릿집의 음식은 베이징 요리에 광둥(廣東) 스타일을 보탠 맛이였다. 이들 고급 청요릿집의 고객 중에는 식민지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이 많았다. 이들 때문에 청요릿집에서는 일본식 채소 절임 음식인 ‘다쿠양(澤庵)’을 제공했고, 면(麵)을 ‘우동’이라고 불렀다.

본디 짜장면은 화북 지방의 여름 별미음식이였다. 1948년 한국의 한 화교가 콩기름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인 ‘탈지대두’를 누룩곰팡이로 발효시켜 볶은 설탕이나 캐러멜 색소를 넣은 ‘사자표 춘장’을 개발하면서 한국식 짜장면의 맛이 시작되였다. 1962년 이후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한국 농민 화교 중에는 읍면 소재지에서 중저가 중국 음식점 운영에 뛰어들어 사람이 많았다. 이들 중 한국인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짠맛이 강한 춘장에 물을 넣은 달콤한 맛의 짜장면을 판매했다. 이때부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짜장면이 만들어졌다.

1960년대 이후 대중화된 짜장면은 한국 정부가 펼친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상이였다. 1965년 갑자기 돼지고기가 부족해지자 값을 올리는 대신에 돼지고기를 적게 넣고 감자나 당근을 넣은 짜장면이 생겨났다. 1976년 한국 정부가 내국인의 화교 학교 입학을 금지시키자 적지 않은 화교 학교가 문을 닫았다. 결국 많은 화교가 한국을 떠났고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식 중국 음식은 이런 과정을 밟아서 만들어졌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조선족 동포들이였다. 2000년

포커스 II



베이징 짜장면(위)과
군산 짜장면(아래)

대 들어와서 조선족 동포들은 서울 여러 곳에 집단거주지를 만들고, 연길 냉면을 비롯하여 자신들이 개량한 양꼬치구이(烤羊肉串)를 판매했다. 특히 양꼬치구이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인기 중국 음식이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베이징의 대학촌인 ‘우다오궈(五道口)’에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양꼬치구이는 2020년대 들어와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속의 중국 음식이 되었다. 한국인이 소비하는 양꼬치구이의 양고기는 중국산이 아니라 대부분 호주산이다.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양고기 수입량은 2013년 약 5,000톤에서,

2016년 1만 톤, 2018년 약 1.8만 톤으로 늘어났다. 한국에서의 양꼬치구이 유행은 중국 맥주의 소비량을 증가시켰다. 2018년 한 언론에서는 “치맥 대신 양맥!”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을 정도다.

2017년에 들어와서 중국 음식 ‘마라탕(麻辣燙)’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마라탕은 원래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와 충칭(重慶) 사람들이 20세기 이후 즐겨 먹어온 ‘훤궈(火鍋)’의 일종이다. 2000년대 이후 청두와 충칭의 훤궈가 중국의 대도시로 퍼져 나갔다. 세계적으로 매운맛이 인기를 끌면서 베이징의 동즈먼(東直門) 구이제(鬼街)의 거리 양쪽에는 온통 붉은색 간판을 단 마라탕 전문 음식점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마라탕은 태극 모양으로 가운데를 나눠놓은 큰 솥에다 한 곳에는 맵지 않은 닭고기 육수를, 다른 한 곳에는 아주 매운 돼지고기 육수를 담아낸다. 손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각종 고기와 해산물, 채소 등을 주문해 입맛에 따라 닭고기 육수나 돼지고기 육수에 넣어 익혀서 먹는다.

중국인들이 흔히 ‘마라(麻辣)’라고 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추, 후추, 천초(川椒)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 마라의 매운맛 중 ‘마(麻)’의 맛은 천초와 후추에서 나온다. ‘라(辣)’의 맛을 내는 것이 고추다. 또 진피(陳皮), 초마(椒麻), 초장(椒醬), 강즙(薑汁), 산향(蒜香), 마장(麻醬), 개말(芥末, 겨자가루) 같은 매운맛 향신료와 조미료도 마라탕에 들어간다.

2010년대 후반 한국에 들어온 중국의 마라탕은 서울의 베이징식 중국 음식점과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양꼬치구이집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미 핫소스와 불닭의 매운맛에 빠져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익숙지 않은 향신료가 가득한 마라탕을 쉽게 받아들였다. 2018년부터 마라 맛을 첨가한 인스턴트 식품이 시장에 속속 나왔다. 중국인은 마라탕의 국물을 먹지 않지만 한국인은 먹으려고 한다. 짜장면에 이어 마라탕도 한국화의



베이징 마라상귀(麻辣香鍋)

과정을 밟았거나 밟고 있는 중이다.

짜장면이 화교에 의해서 한국화의 길을 걸었다면 양꼬치구이와 마라탕은 조선족 동포들에 의해서라는 점이 다르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중국 음식점 주방에는 한족 출신 노동자가 많아졌지만, 한족이 중심이 된 한국의 중국 음식 교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에 가까웠지만, 그들은 한국 음식, 그중에서도 몇몇 한류 음식을 소비하는 데 그쳤다. 한국인의 외국 음식 수용은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한국인은 매우 개방적인 입맛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들 중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짜장면에 이어
마라탕도 한국화의
과정을 밟았거나 밟고
있는 중이다.

마라탕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유행하는 음식만 쫓을 뿐, 외국음식을 문화적으로 현지화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드물다.

4. 유감 : 김치 대 파오차이 논쟁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관광’은 외국 음식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사람들은 관광지에서 먹어본 음식을 귀국 후에 자신의 나라에서도 먹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서로 가까워지면서 선진국의 대도시에 외국 음식점이 자리를 잡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0년대가 되면 인터넷은 새로운 음식 교류의 매개물로 등장했다.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음식의 체험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체험을 동반하지 못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일도 많아졌다.

2020년 12월 초에 중국의 한 네티즌이 쏘아올린 한국 김치의 기원이 자국의 ‘파오차이(泡菜)’라는 주장 역시 인터넷이 만들어낸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쓰촨성의 한 도시에 소재하는 파오차이협회에서 신청한 ‘파오차이 국제규격’을 2020년 11월 24일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IOS에서 승인해 준 파오차이의 규격에는 “이 문서는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 유튜브버는 한국의 배추김치를 요리하면서 배추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런 오류가 일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

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알고 김치의 중국어 번역어로 ‘신치(辛奇)’를 제시했지만, ‘김치=파오차이’라는 인식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식품사 연구에서 실증주의 연구법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식품사 연구자들은 김치를 뜻하는 가장 오래된 한자를 ‘저(菹)’로 보았다. 그런데 이 ‘저’가 중국의 『시경(詩經)』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네티즌들이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

사실 쓰촨의 파오차이는 한여름에 채소를 식초에 절인 음식이다. 쓰촨 파오차이의 용도는 한국의 김치처럼 밥반찬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쓰촨에서는 오래 전부터 돼지고기를 요리하여 생선 맛을 내는 요리 기술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솜씨가 뛰어난 요리사가 많았다. 돼지고기 요리 때 파오차이를 넣으면 냄새를 없애주면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다. 적어도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청두 사람들은 음식점이나 집에서 파오차이를 스스로 만들었다.

1990년대 후반 중국 식품 시장이 공장제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쓰촨성에 파오차이 생산업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판매량은 기대와 달리 크게 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쓰촨성의 파오차이 업체에서는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파오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의도는 한국 김치의 명성에 기대서 파오차이의 판매를 늘려보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ISO에 신청한 파오차이의 규격을 “배추류, 겨자 줄기, 줄콩,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채소 제품으로 소금물에 담가 유산균 발효된 식품”이라고 적었다.

중국에는 지역마다 파오차이 외에도 염차이(鹽菜), 쑤안차이(酸菜) 등 다양한 채소 절임 음식이 있다. 채소 절임 음식은 소금·식초·간장·된장·술지게미 등을 매개물로 하여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날 채소를 오랫동안

동안 저장하는 방법에서 나왔다. 세계 여러 지역에 소금 절임 혹은 식초 절임의 채소 절임 음식이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 누구든지 날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려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요리법이 바로 채소 절임 음식이다. 이렇게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요리법인 채소 절임 음식은 집단적인 이주가 아니면 주변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1970년대 화교가 운영했던 중국 음식점에서 파오차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산동 음식이 아니라 산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쓰촨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한중 음식 교류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문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이나 저널리즘이 주도하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음식의 역사 혹은 특정 음식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양국의 국민 사이에 혐오를 강화시킨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펼치고 있는 한국 음식 자국 기원 주장은 중국의 음식민족주의(Gastro-Nationalism)에서 나온 것이다. ‘음식민족주의’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민족과 국가 사이의 민족주의가 음식에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을 가리킨다. 음식민족주의에는 자국 식품이 글로벌 식품 유통 시스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려는 산업적 의도도 숨어 있다.

음식민족주의에는 자국 식품이 글로벌 식품 유통 시스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려는 산업적 의도도 숨어 있다.

포커스 II

의도도 숨어 있다.

그렇다면 최근 한중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음식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음식은 공동체가 지닌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다. 서로 다른 공동체가 음식 교류를 하려면 같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음식을 직접 먹어보아야 한다. 만약 한중 국민들이 대면으로 만나 배추김치와 파오차이를 만들어 본다면, 두 음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한중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이런 만남이 제공해준 식탁 위의 교류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영하(周永河, Joo, Young-ha)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중국 서남 소수민족 연구로 민족학(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시아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주로 연구한다. 저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2018)가 대만에서, 『식탁 위의 한국사』(2013)가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는 음식민족주의(Gastro-Nationalism)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 도자사(陶瓷史) 연구 교류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

지식사에서 가장 큰 권력은 방대한 데이터이다. 그리고 데이터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환경과 태도 위에 수용과 축적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시각화된 조형물인 도자기를 지역과 시대, 사용자, 용도, 기술, 유통, 식생활, 의례, 디자인 등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도자사 연구는 미술사에서 중국과의 수교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분야일 것이다. 그만큼 중국 측 자료와 현황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오랫동안 불가능했던 반증이기도 하다.

지식사에서 가장 큰 권력은 방대한 데이터이다. 그리고 데이터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환경과 태도 위에 수용과 축적이 가능하다.

1990년대 초 이후 전국적으로 가마터 발굴과 유적에 대한 조사로 도자기술은 물론, 제작 시기에 대한 동반관계와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요업기술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고 있었다. 특히 도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고려 초기 자기 가마터에 대한 발굴이 몇몇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경기



경기도 시흥 방산동 출토 옥벽저 완(해강도자미술관 발굴)

도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등에 대한 발굴이 그것이다.

당시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원래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기들의 편년과 선후 관계를 가늠할 길이 없어 자연히 내재적 기술의 진보 위에 자기 제작 기술 발달이 가능했다는 공고한 가설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 그 가마들에서는 중국 당나라 전성기에 유행했던, 그래서 당나라 도자기들 중 대표적인 기종이라고 유독 국내에 알려져 있던 이른바 ‘옥벽저(玉璧底) 완’이라는 접지면이 넓은 청자 완(碗)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대거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일찍이 청자를 만들었다는 기쁨과 놀라움의 기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21세기로 접어든 지금, 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중과의 소통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만들게 된 것인가? 통일신라에 그만한

기술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1. 기록자료를 넘어 현장으로

1992년 8월 한중 수교는 그동안 누적된 수많은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도 1994년 1월 처음으로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鎮)에 발을 디게 되었는데, 상하이에서 11시간 이상 증기기관차를 타고 밤새워 달렸던 기억은 너무도 생생하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도자기의 실체는 유럽이나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도록으로 보아왔던 것들이며, 19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로 맞닥뜨렸던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품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청나라인지 중국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던 징더전 시골은 진흙탕 위에서도 활기찼고, 여전히 전근대적 방식으로 도공들은 작업장에 딸린 쪽방에 기거하고 있었다. 명품으로 엮여 온 머릿속 프레임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신라청자’에 대한 의문의 답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중국 저장성(浙江省) 일대 요업사에 대한 연구성과와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전문가들이 국내에 초청되었다. 그들을 통해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 당나라 양식의 청자들이 변형된 당나라 양식의 청자이며, 함께 제작된 다른 기물들의 비중과 양식으로 보아 오대(五代)의 중국 남방, 특히 월주요(越州窯)계 요업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다시 한국 측 학자들이 중국에 건너가 관련 유물들을 실견할 수 있었으며, 유사한 요업이 이루어졌던 가마터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물론 지금



중국 저장성 상린후(上林湖) 허화신(荷花芯) 가마(2013년 필자 촬영)

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 학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소문이나 짐작이 아닌, 그것도 한두 점의 파편이 아닌 수십 수백 점의 발굴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 도자기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우리 측의 갈망이 컸으며, 이 새로운 자료들을 먼저 보고 확보할 수 있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심화된 연구가 진척되기 시작했다. 현장으로 향했던 연구자들의 노력은 결국 도자기가 제작되었던 인문·자연지리적 환경과 유통망, 원료의 조달, 기술자의 이동 등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눈앞에 놓인 사진 한 장이나 박물관 진열장에 안치된 명품을 통해 도자기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

치·외교적 변동과 인구의 이동, 기술자의 도래, 한반도 내의 수요 증가와 그 원인 등등이 작용하면서 국내의 자기업을 도인(導引)했을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중국 학계와의 교류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학술정보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 들어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중국고도자학회(中國古陶瓷學會)에 한국 측 연구자들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 학회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도자사 관련으로는 가장 큰 학회이며 매년 주제가 정해지고 발표자 공모를 통해 해당 주제와 연관되는 현지에서 열린다. 보통 2~3일 연속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함께 유적이 공개되고 관련 답사를 병행하므로, 우리에게겐 더할 수 없는 기회였다.

필자도 2004년 처음으로 산시성(陝西省) 통촨시(銅川市)에서 열렸던 ‘요주요국제학술연토회(耀州窯國際學術研討會)’에 참가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2000년대 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조선시대 관요지였던 광주 분원리(分院里) 가마터 발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당시 징더전 도자고고연구소 장젠신(江建新) 부소장을 초청하면서 이

현장으로 향했던 연구자들의 노력은 결국 도자기가 제작되었던 인문·자연지리적 환경과 유통망, 원료의 조달, 기술자의 이동 등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진 것이다. 그곳에는 일본의 저명한 도자사 연구자들은 물론, 영국의 퍼시벌데이비드재단(Percival David Foundation) 로즈 커(Rose Kerr) 박사나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Università Ca' Foscari) 라스텔리 사브리나(Rastelli Sabrina)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는 중국 연구자들이 요주요 도자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도자기 분석 분야 등을 주제로 서구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연구자들의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필자도 박사논문의 일부였던 고려 중기 양각청자(陽刻靑瓷)를 소개하면서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요주요 청자도 함께 소개하는 발표를 했다. 그 후 필자는 가급적 해당 학회를 참관이라도 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도자사와의 접점이 늘어났고 중국 발표자들 가운데 한국 도자기, 특히 고려시대 청자를 주제로 발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식적인 학계 간의 교류는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적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면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 범위를 확대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학계 간의 교류는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적(私的)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면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 범위를 확대하게 해주었고, 당장 공식적인 인용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관련



집녕로유적 현장 공개(2005년 7월 5일 필자 촬영)

된 많은 자료를 쌓을 수 있었다. 잊을 수 없는 경우로는 2005년 여름,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서 개최되었던 학회이다. 네이멍구고고연구소 등은 2002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집녕로(集寧路) 일대 원(元)대 유적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2,045m² 면적에 달하는 성터와 도시유적이 드러났는데, 유적에서 ‘집녕로달로화적총관부(集寧路達鵪花赤總管部)’라는 글자가 문양으로 직조된 비단이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불러 모으기에 그 양과 질에서 충분했다. 기억으로는 초원의 오지에 일본의 하세베 가쿠지(長谷部樂爾) 선생과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연구자들, 영국의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관장도 참가했던 대규

포커스 II



집녕로 출토 고려청자 구룡형 연적(네이명구고고연구소 발굴)

모 학술대회였다. 이곳에서는 1점의 고려청자 구룡형(龜龍形) 연적도 출토되어서 많은 의문을 불러왔다. 강진이나 부안에서 제작되었고 12~13세기에 만들어진 이 청자가 14세기 중국 도자기들과 함께 네이명구의 원대 상엽지구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같은 현장을 마주하면서 Ningbo(寧波), Hangzhou(杭州), Hebei(河北省) 등 도처의 소비유적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는 현상은 골동품과 미술품을 거래하던 시장의 형성과 그 맥락 안에서 고려청자가 동시대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역관계와 관세 등 여러 관점에서 살피게 되면서 ‘천하 제일 고려비색(天下第一 高麗翡色)’의 전설이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에 한층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 도자사 연구에서 특히 필요했던 상호 연구성과의 소통은 도자사 연구 분야에 국한하지 않았다. 각 성 단위로 이루어지는 벽화고분의 발굴

이나 성과의 공개는 한국 도자사의 난제들, 즉 사람이 살아가고 혹은 죽어 장례 지내기까지 서로 다른 공간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예품이나 도자기들의 성격을 추정하게 하면서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문화·지리적인 인접성은 예나 지금이나 동시대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전시,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연구성과의 축적

중국과 한국 연구자들이 함께 유적을 답사하고 유물을 탐색하는 일은 양국의 연구자들이 관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구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증대는 이차적으로 양국에서 전시와 공동연구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2013년 항저우 남송관요박물관(南宋官窯博物館)에서는 항저우, Ningbo 일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전시가 개최되었는데, 박물관 1층 전체를 관련 파편자료와 유물로 채울 만한 것이었다. 지금껏 말로만 듣던 자료들이 전시를 통해 공개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실물을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계기에 비공식적으로 집담회가 열리기도 하여, 당시 항저우, Ningbo 일대에서 고려청자를 수집

한국 도자사의 난제들, 즉 사람이 살아가고 혹은 죽어 장례 지내기까지 서로 다른 공간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예품이나 도자기들의 성격을 추정하게 하면서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포커스 II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필자 촬영)

해 온 중국 측 컬렉터들이 한국 학자들을 모아 자신들의 유물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의 경우 한국이 인양한 신안선에서 발굴된 다량의 원대 용천요(龍泉窯)와 징더전 백자 등을 중심으로 도자기 해상무역에 대한 한중일 관계를 살필 수 있었는데, 다량의 유물을 아카이브식으로 전시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 경우였다. 신안선 출수

품(出水品)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원대 용천요 청자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고, 향후 전개되었던 중국 저장성의 용천요 관련 전시나, 국내외에서 번갈아 개최된 관련 학술대회는 일반 대중은 물론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진척에 기여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이 용천요 일대에 대한 발굴을 토대로 대대적인 유적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도 어찌면 한국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학술 교류는 학회 외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¹이나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이 양측 정부를 통해 현지의 고고연구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 등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면서 개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규모와 깊이의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상호 이슈가 있다면 명분을 얻어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시적인 채널을 활용한 정보의 소통

도자사 교류에서 가장 주효했던 것은 상시적인 채널을 통한 빠른 정보의 소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채널은 특별한 기구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교류처럼 정치·외교적

1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변수가 클 경우 정보와 신뢰의 축적은 개개인 연구자들의 신뢰에 기초한 유연한 소통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신속한 가마터 발굴과 새로운 유물의 등장, 전시 소식, 학계의 정보는 대부분 사적인 관계를 통해 가장 먼저 유통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발굴과 유물 정보를 집적하는 단위가 각 성(省)별 문물고고연구소(文物考古研究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 내지 부소장급들은 대체로 해당 지역 고고학자들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오랜 시간 누적된 인적 네트워크는 훗날 상당한 호의와 편의로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속적 관계가 중시되는 곳이 중국이다.

고려시대 북방 요(遼)와의 갈등으로 오랜 외교적 단절 상태가 지속되다가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전반에 걸쳐 정세가 바뀌면서 북송의 사신들이 고려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 북송 사신들의 눈에는 거리에 나와 자신들을 구경하는 고려인들이 신기했고, 고려인들은 북국의 사자들을 본 지가 오래된 데서 오는 감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의 단절기에도 송상(宋商)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는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문이 열리면 사람과

공식적으로 문이
열리면 사람과 물건,
기술이 이동하지만,
문이 닫혀도 우회로를
통해 교류는
계속되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포커스 II

물건, 기술이 이동하지만, 문이 닫혀도 우회로를 통해 교류는 계속되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남원(張南原, Chang, Nam-won)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한국 도자사 전공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 인문대 미술사학과 교수와 박물관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 및 동아시아 도자사, 그리고 공예사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미술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수교 30주년, 베이징에서 본 중국의 외교·대한민국 전략

조준형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체감한다. 그러나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 상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지난 1년 가까운 체류 기간에 체감한 중국의 대한민국 정책과 기류, 중국 외교의 흐름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1. 중국인에게 '알미운' 한국, 그러나 전략적인 중국 정부

중국인들은 한국 내 대중국 정서처럼 '거국적'으로 한국을 싫어할까?

그것이 좀 미묘하다.

6월 30일 오후 한때 중국 웨이보(微博)의 인기 검색어 톱10 중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

통령의 ‘노룩(no look) 악수’가 2위, 삼성의 3나노 반도체 양산 소식이 4위에 자리했다.

이것이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민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 쪽으로 치우치더니 미국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고 고소하다’는 정서와 함께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반도체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정서가 교차한다.

실제로 베이징에서 일하며 느끼는 정서가 그렇다. 한국의 대중국 정서처럼 압도적인 배격 정서는 아니지만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정서, 자국과 사생결단 갈등하는 미국 쪽에 다가가는 듯해서 미운데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한국이 불쾌한 일을 당하면 고소해하는, 그런 미묘한 정서가 존재한다.

이런 정서는 약간의 불쏘시개가 가해지면 반한 정서로 타오른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쇼트트랙 심판판정논쟁 때 그랬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 정부가 이런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을 억제해 가며 한중 관계 증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점이다.

이튿날인 7월 1일 오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

한국의 대중국 정서처럼 압도적인 배격 정서는 아니지만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정서, 자국과 사생결단 갈등하는 미국 쪽에 다가가는 듯해서 미운데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한국이 불쾌한 일을 당하면 고소해하는, 그런 미묘한 정서가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2021년 9월 3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한중구 베이징 특파원 촬영)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모습(2022년 3월 17일 필자 촬영)

리핑에서 이례적인 풍경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사실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질문이 홍콩 매체로부터 나왔는데, 양국에 대한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의 언사가 180도 달랐던 것이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우선 일본에 대해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응당 자신의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은 공히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서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광범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은 이미 반중으로 가는 루비콘강을 건넜고, 한국은 아직 건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발 메시지는 확실히 한국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양국 간 협력 여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국 비판과 쓴소리는 주로 ‘전랑(戰狼)외교’ 기조를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가 맡고, 외교부 대변인 등은 주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 철저히 미중 전략경쟁 구도로 한국을 보는 중국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전략적 자제’의 태도와 ‘계산된’ 우호 메시지 발신은 중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올해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베이징 창안(長安)대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2022년 6월 4일 필자 촬영)

수준의 ‘외교 위기’를 겪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 뿐 아니라 유럽까지 중국을 러시아와 ‘원 팀’으로 간주하며 등을 돌린 것이 중국으로선 뼈아프다.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가 유럽의 리더로서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유럽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이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이 동조화하면서 중국은 서방 진영 전체로부터 고립돼 있다.

이런 터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은 일본, 호주와 다른 길을 가길 바라는 중국 지도부의 바람이 감지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나토 정상회의 같은 서방 주도 다자회의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 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미 동맹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사드 추가 배치 등 중국이 '비수'로 여기는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이다.

근래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정상화 행보에 대해 양국 소통 계기에 고강도 견제구를 던졌다는 후문이다.

이 대목에서 한중 관계의 한 단면을 본다. 한국은 비교적 한중 관계를 독립적 양자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면, 중국은 철저히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이곳에서 절실히 느낀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에서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 다가서고 있다. 그 필요가 흐릿해지거나, 한국이 일본, 호주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에 쏠리고, 중국 압박에 동참한다고 판단하면 살얼음판 같은 우호 정책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환구시보』의 한국 관련 기사나 기고에서 중국

한국은 비교적 한중 관계를 독립적 양자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면, 중국은 철저히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이곳에서 절실히 느낀다.

내 요소 수출 통제로 불거진 작년 한국 내 요소수 수급난이 근래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정부의 경고 메시지 전달을 대행한 것이리라 생각한다.

3. 상대 사회에 대한 이질감 격화, 한중 관계 중대 변수 된 국민 감정

수교 30주년 양국 관계,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로 국민 감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정서의 어긋남은 점점 심화하는 양 국민 간 가치 관념의 차이로 인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한류가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중국 사회가 점점 주류 한류 콘텐츠의 개별성과 개인주의, 사회 비판(또는 반영) 성향을 수용하기 힘든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양 국민 다수는 자신들과 다른 상대국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 국민성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 인사들도 한국 내 반중 정서와, 그 정서가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서 악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 사드 보복의 장기화가 한국 민심을 미국 쪽으로 밀었다는 데 대한 자성도 중국 권부에 존재하는 것 같다.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반한 정서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관리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한국에 대한 부정적 네티즌 여론이 양국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추정한다.

현재 중국의 외교는 고도로 국내정치, 특히 여론정치와 연결돼 있다.

중국은 작금의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국민 단결에 활용하는 양상이다. 미국에 대한 원망을 월~금 매일 브리핑을 하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쏟아 놓고, CCTV(중국중앙텔레비전) 등 관영 매체는 그것을 크게 보도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반미 정서로 하나 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대미 '올인' 기조를 굳혔다고 판단하면 중국 정부는 민간의 반한 정서를 관리하길 그만두고, 그에 편승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4. 한중 수교 30주년, 서른 잔치는 끝났다

베이징에서 수교 30주년의 분위기는 그다지 뜨지 않고 있다. 중국 사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을 당대회 모드로 이미 돌입했고, 경제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모든 어젠다는 당대회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치, 그것도 당대회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고전 소식과 주재원 감원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한국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손에 꼽히는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 부진은, 여전히 양국로는 압도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양국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대미 '올인' 기조를 굳혔다고 판단하면 중국 정부는 민간의 반한 정서를 관리하길 그만두고, 그에 편승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간의 경제 교류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최영미 시인의 시 제목처럼 서른, 잔치는 끝났는지
도 모른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면 서로 민낯과 대면할 수 있다. 지난 30년
간 비약적인 교역량에 가려졌던 양국 관계의 거품을 제거하고 본질과 직
면하고, 감정과 선입견을 배제한 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조준형(趙濬衡, Cho, Joon-hyung)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1999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 통일외교부, 국제
뉴스부, 팩트체크팀, 도쿄 특파원 등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베
이징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중 수교의 해인 1992년 2지
망으로 지원한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중국과 인연을 맺
어 한중 수교 30주년에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는 것을 영광이
자 귀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Guest Essays

Interactions and Friendship: Korea-China Relations as Seen in Choe Bu's *Pyohaerok*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Ge, Zhenjia

Focus I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Retrospect and
Prospect**

Thirty Years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Retrospect and Prospect

Shin, Jung-seung

Thirty Years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Evaluation and Reflection

Cho, Young-nam

Beyond History: In Search of a New "Value-based Alliance" in Asia

Kang, Jin-a

Focus II

**Interactions and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China**

Roles and Achievements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Scholarly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Lee, Seong-je

China's perception of Koguryo history through museum exhibitions

Kim, Hyun-sook

The Imjin War and Korea-China Relations in the Sixteenth Century : Focusing on *Sadae Mungwe* [Joseon-Ming Diplomatic Documents]

Lee, Jeong-il

Culinary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The Past 30 Years

Joo, Young-ha

Korea-China Scholarly Interactions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Porcelain

Chang, Nam-won

Field Reports

The 30th year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Cho, Joon-hyung